

한인뉴스

1 2017

VOL. 247

haninnewsinni@gmail.com

신년 특대호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SAMSUNG

Confidence has a New Color

with IP68 Water and Dust Resistant*



Galaxy S7 edge
Blue Coral

*Dust and water resistant (IP68 rating) means that device is protected against entry of solid foreign objects and harmful ingress of water at up to 1.5 meters for up to 30 minutes, under certain defined test conditions. According to accredited test results; individual results may vary. Note: IP68 rating does not mean that device is waterproof.



스케일이 다른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완벽한 휴식, 비즈니스와 품격이 공존하는 하늘 위 나만의 공간-
180도 완전 평면 침대형 좌석으로 내 집같은 편안함은 물론, 40여편이 넘는 영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음악CD를 제공하는 최첨단 개인형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으로
또 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대한항공과 함께 최상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출발	도착	편명	출발시간	도착시간	요일	기종
자카르타	서울	KE628	2200	0700 ⁺¹	매일	77W
서울	자카르타	KE627	1535	2040	매일	77W

*대한항공 발리-서울 노선 매일 운항

예약 및 기타 문의는 아래 대한항공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자카르타 지점 : 62-21-521-2180

www.koreanair.com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2017 설날마중

최고의 품격을 선물하세요

새은 행사



1월 2일 ~ 22일

설날 더블 벨류 상품권

1월 28~29일 이틀 동안 두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날맞이

SHOP NIGHT OUT

1월 28일~29일 단 이틀 12시 까지 연장 영업합니다!

- 최대 70% 할인 •
- 10% 추가 할인 + 10% 상품권 증정 •
- 설날 더블 벨류 상품권 증정 •
- 유명 아티스트 스페셜 공연 •

스페셜 바자

2017 제1회 롯데 골프 대전

(1월10일 ~ 2월12일) | GF

브랜드:

TaylorMade

adidas



MIZUNO

OAKLEY

UP TO

70%

매트리스 특집전

(1월11일 ~ 1월22일) | 3F

브랜드:

KING
KOIL

TEMPUR
MATTRESSES AND PILLOWS

FLORENCE
ITALY

Serta
USA

스페셜 이벤트



설날 페스티벌

롯데에비뉴와 함께 다양한 설날 축하 행사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천수관음무(千手觀音舞)

1월 21일 & 29일

넓게는 불교철학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 중국
전통적인 문화유산 공연을 함께 보세요!



중국 전통 연극 "변검"

1월 28일 ~ 2월 4일

신기하고 맛있는 중국 전통 복장의 가면술
변검(變臉) 공연을 롯데에비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스케줄은 사정에 따라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百年顧客



hotelfacilities



Borobudur Grand Ballroom



Rama Ballroom I



Shinta Ballroom II



Meeting Room 1-V



Fitness Club



Driving Range



Garden Brasserie



Bunker Cafe



Coffee Shop



Business Center



Pool Bar



PUB



Swimming Pool



Restaurant



Sauna & Spa



Money Changer

Java Palace Hotel

Jl. Niaga Utara Kav. 1-2

Jababeka II

Cikarang - Jawa Barat

17530 Indonesia

reservation@palacejava.com

Telp: (62-21) 29281111

Fax: (62-21) 29287300

✉ : info@palace.co.id

Benefit

혜택

고주몽을 포함한 자바팔레스호텔 내 식음료 할인

- 15% 할인 주류 포함

자바팔레스호텔 스파

- 마사지 20% 할인

자바팔레스호텔 골프 연습장

- 일반 가격에서 30% 할인

자바팔레스호텔 헬스장, 사우나, 스파 시설

- 1년간 무료 이용

자바팔레스호텔 객실

- 무료 숙박권 3매 (주말, Superior Room, 조식 2인 포함)

- 숙박 50% 할인권 2매 (주말, All Room type)

- 숙박 20% 할인권 6매 (주중 포함, All Room type)

Seruni Coffee Shop

- 생일 당일 무료 생일 케익 제공

(사전예약필요)

Annual Fee
IDR. 4,500,000 nett

JOIN NOW

0001

privilege

Richard Chu

Member Since

8/15

Valid Until 8/16

SAINT JAMES

Dinning Set Wendy



Dinning Set 24 Pcs



Tea Set 5 Pcs



Tea for One 4 Pcs

SAINT JAMES Showroom

Pondok Indah Mall
 Jl.Metro Pondok Indah Blok 3B
 2 floor unit 219, Jakarta Selatan
 Tlp.021-75920615

Lotte Shopping Avenue
 Jl. Prof Dr Satrio Kav 3-5 2F floor
 unit 36 Karet Kunigan, Jakarta 12940
 Tlp.021-2988 9215

Lippo Mall Kemang
 Kemang Village L2-18 Lt2 36P
 Antasari, Jakarta
 Tlp.021-2952 8530

Lippo Mall Puri
 Jl. Puri Indah raya 11610
 Unit No. LG-90
 Tlp.021-2911 1197

고객문의 : 021-3190-6949

www.saintjames.com



PT. STAR CAMTEX

희망찬 새해입니다.
2017년에도 풍성한 결실을 위해 열심히 달리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PT. HANINDO EXPRESS UTAMA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물류 운송과 PROJECT CARGO 운송 전문업체
HANINDO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SINCE 1993)

업무 안내

- 수출입 화물 해상, 항공 운송
- 수출입 화물 통관 (EDI ON - LINE) 및 내륙 운송
- PROJECT CARGO 및 건설 장비 운송
- 특수 장비 국내외 운송
- LCT / BARGE TRANSPORTATION
- 해외 이주 화물 (이삿짐) 운송 및 통관



LCT Transportation



BARGE Transportation



COLUMN Transportation
(L X W X H @ 52.0 X 2.1 X 2.1 M)



REACTOR Transportation
(L X W X H @ 35.0 X 7.95 X 8.45 M)

Granadi Bldg 7th Fl. South Wing, Jl.HR.Rasuna Said Kav 8-9,

Jakarta 12950 Indonesia

E-mail : hanindo@hanindo.net

Website : www.hanindoexpress.com

Telp : (62 21) 2525-123, Fax : (62-21) 2520-551, 2520-556

HP : 081-848-5570 (Mr. CHO) Hp : 0811-816-0627 (Mr. SHIN)

항상 고객으로부터 믿음과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PT. BOSUNG INDONESIA

PT. BOSUNG INDONESIA



**CORRUGATED SHEET
CORRUGATED CARTON BOX
SHOPPING BAG
INNER BOX**

<제품안내>
종이 골판지 생산
카톤박스
포장용 박스
종이 쇼핑백

**포장재 전문회사 보성인도네시아
고객 만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Jl. Raya Rajeg, Desa Sindangsari, Kecamatan Pasar Kemis Tangerang Banten 15560, Indonesia
E-mail : shopping@bosung.co.id | sales@bosung.co.id Tel. (021) 5935 1001 (hunting)
Fax. (021) 5935 0022 (Shopping bag), (021) 5935 0066 (inner box), (021) 5935 0033 (carton box)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PT. TAEWON INDONESIA

PT. TAEWON INDONESIA



CORRUGATED | CARTON BOX | INNER BOX | OFFSET PRINTING | PULP MOLD

Jl. Raya Industri Selatan 1, Blok LL-6 Kawasan Industri Jababeka II Cikarang Bekasi 17550
E-mail : sales@taewon.co.id Tel. (021) 8948 1234 Fax. (021)8984 1133/1134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Best Quality & Delivery



MACHINE CAPACITY

Factory 1

- LDPE extruder 6 sets, emboss roller 3 sets
- sealing machine 7 sets
- HDPE extruder 5 sets, emboss roller 1 set
- rotogravure printing machine 1 colour 1 set
- rotogravure printing machine 2 colour 1 set
- rotogravure printing machine 4 colour 2 sets
- rotogravure printing machine 5 colour 1 set
- PP strapping band extruder 2 sets
- mixing machine 2 sets
- side seal machine 4 sets
- crusher machine 4 sets
- hanger machine 4 sets

Factory 2

- LDPE extruder 10 sets, emboss roller 5 sets
- sealing machine 10 sets
- rotogravure printing machine 1 colour 1 set
- rotogravure printing machine 2 colour 4 sets
- flexo printing machine 2 colour 2 sets
- PP extruder 4 sets
- crusher machine 1 set
- side seal machine 5 sets
- hanger machine 5 sets
- mixing machine 2 sets
- roll bag machine 1 set
- HF PVC machine welding 5 sets
- corona treatment 3 sets
- slitting machine 1 set

PRODUCT

- polybag (LDPE, PP, HDPE), (5cm, 280cm width)
- all kinds of shopping bag 5 colours printing
- PVC bag
- garbage bag
- PP strapping band (PP band)
- OPP bag
- zipper bag
- emboss roll bag
- roll bag

2017

丁酉年 辛巳 乙亥 庚



연하작품설명: 常상, 항상) 樂락, 즐거움)/ 늘 즐거운 일상-작가 연곡 박재한



재인도네시아 동포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엔 새롭게 가려고 다짐을 합니다.

길도 닦고, 잡초도 뽑고, 돌아난 가지도 치고, 이정표도 새 것으로 달고
많은 사람이 걸어도 편안한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조태영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

2017년 정승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해 다들 건강하시고, 동포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큰 기쁨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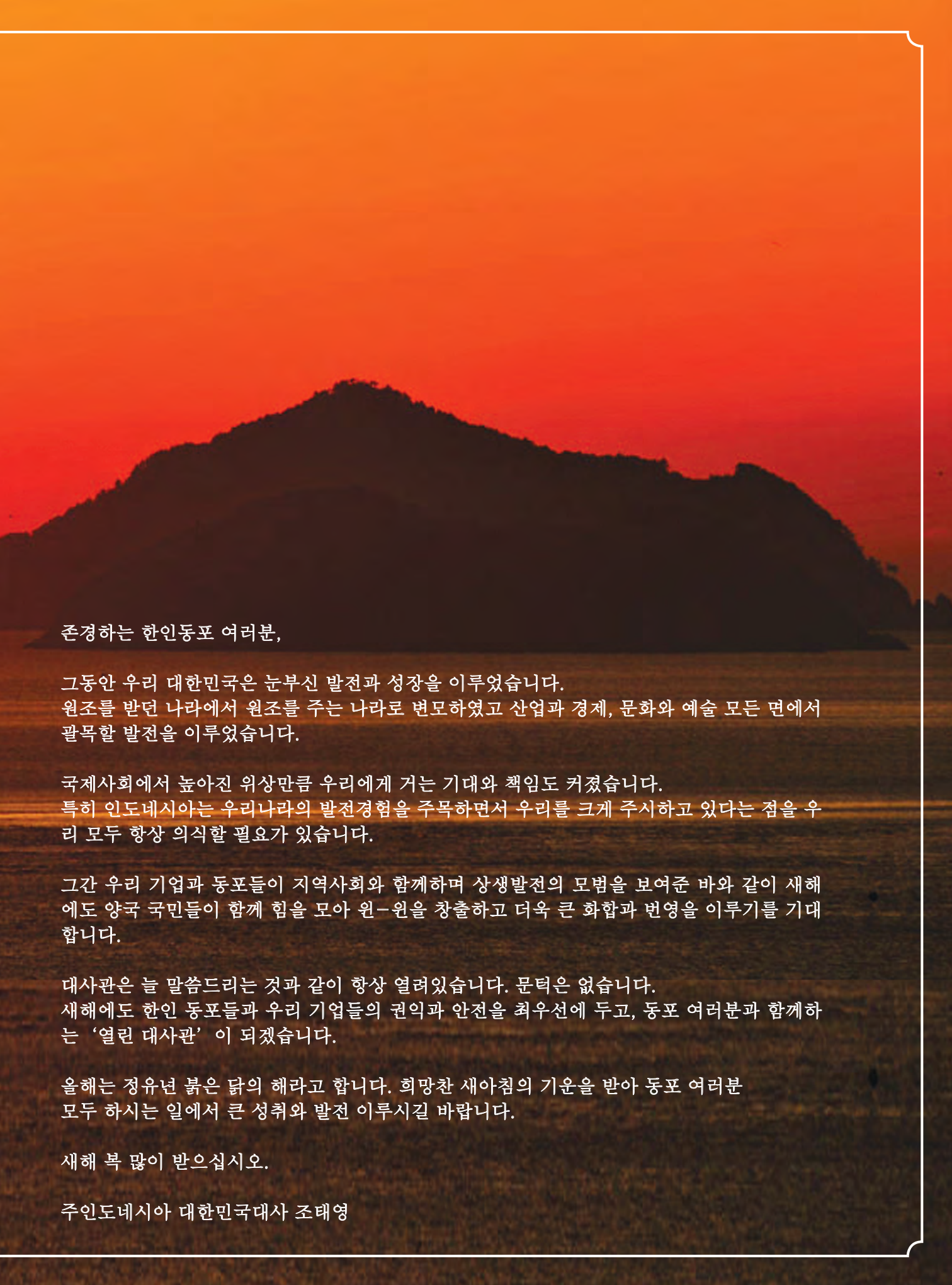
지난해에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자신의 역할을 굳건히 수행하며 잘 헤쳐 나왔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동포 여러분들의 모범이 있었고, 한인회를 중심으로 각종 동포단체가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성취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관계는 지난 한 해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지난 5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국민방한은 양국 관계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고, 각 분야별로 이어진 후속 조치를 통해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전반에 걸쳐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중시하는 해양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해양공동위가 개최되었고, 산림협력과 식량분야에서도 상호 윈-윈을 창출할 좋은 사업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건설되는 경전철 1단계 사업을 우리 기업들이 맡게 되는 등 인프라 분야의 협력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그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이 각 분야에서 더욱 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인동포 여러분,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모하였고 산업과 경제, 문화와 예술 모든 면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위상만큼 우리에게 거는 기대와 책임도 커졌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주목하면서 우리를 크게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 항상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간 우리 기업과 동포들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상생발전의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새해에도 양국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윈-윈을 창출하고 더욱 큰 화합과 번영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대사관은 늘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항상 열려있습니다. 문턱은 없습니다.
새해에도 한인 동포들과 우리 기업들의 권익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동포 여러분과 함께하는 '열린 대사관' 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정유년 붉은 닭의 해라고 합니다. 희망찬 새아침의 기운을 받아 동포 여러분 모두 하시는 일에서 큰 성취와 발전 이루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 조태영



양영연 한인회회장

서러움을 나누고 함께 극복해 나갑시다

사랑하는 한인 가족여러분,
또 다른 설렘으로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며, 동포 여러분 가정에 새로운 활기가 넘치
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2016년 한인사회의 다양한 행사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한인을 위한 모금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포 여러분께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도네시아 속의 우리 한인은 이미 규모 면에서 큰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인 동포끼리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에 걸맞은 위상과 인도네시아에서 기
대하는 자격도 갖추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포 안전망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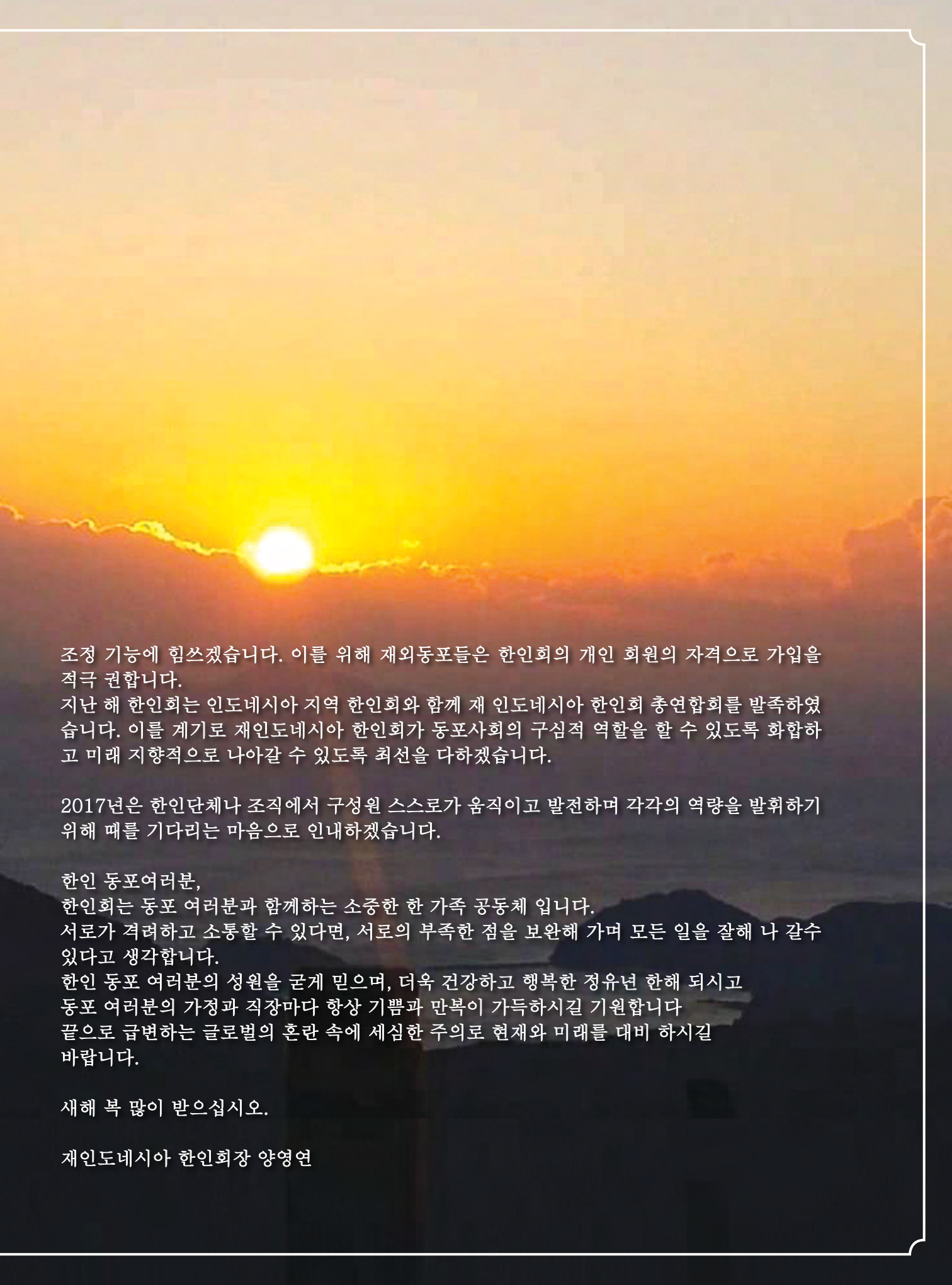
한인 동포의 안전 대책으로 동포 안전 권익을 위한 분과를 통해 체계적인 안전망 구축에 박
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동포 안전 수칙 수립 및 대사관과의 연계 조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동포 구조 사업의 활성화

2016년 7월, 재외한인구조단과의 업무 협약으로 어려움에 처한 동포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
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더 많은 동포들이 혜택을 받으며 삶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한인회가 그 해결책 도모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동포 사회의 화합과 결집

한인회는 한인 동포와의 소통을 우선시하여 동포의 어려움을 나누고 관계를 개선하는 상담,



조정 기능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들은 한인회의 개인 회원의 자격으로 가입을 적극 권합니다.

지난 해 한인회는 인도네시아 지역 한인회와 함께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 총연합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가 동포사회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화합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은 한인단체나 조직에서 구성원 스스로가 움직이고 발전하며 각각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인내하겠습니다.

한인 동포여러분,

한인회는 동포 여러분과 함께하는 소중한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격려하고 소통할 수 있다면,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가며 모든 일을 잘해 나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인 동포 여러분의 성원을 굳게 믿으며,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정유년 한해 되시고

동포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마다 항상 기쁨과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급변하는 글로벌의 혼란 속에 세심한 주의로 현재와 미래를 대비 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양영연



승은호 한인회 명예회장

정유년 새 아침, 희망을 설어감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차게 떠올라 대지를 비추는 닭의 해 정유년(丁酉年)의 아침 햇살처럼,
교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신년 벽두가 되면 우리는, 어김없이 묵은해의 아쉬웠던 기억을 털어내고,
우리 몫으로 주어진 새로운 한 해를 알차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곤 합니다.
특히 이국땅에서 신년을 맞는 우리 교민들에게는, 새해 아침의 이 다짐이
더욱 각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매일이 개척의 나날이요, 매 순간이 도전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작년 한 해도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우리 교민들도 예외 없이 많은 어려움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물론 교민 각자가 종사하는 분야에 따라서 소기의 성취를 이룬 분들도 계실것입니다.

금년 역시 우리의 경제활동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지역, 어떤 환경도 누구에게나 '블루오션' 이나 '기회의 땅' 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하고 이겨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재 인니 한인회는 인화와 단결을 바탕으로 한 교민 상호 간의 굳건한 협력체제의 구축과 2세 교육 인프라 등, 세계 어느 나라의 동포사회와 견주어도 가장 모범적이라고 감히 내세울 수 있는 전통과 문화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은 서로 상의하고 함께 대응할 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사소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활동 터전인 이곳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중심국가로서 그 위상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세안이 우리 대한민국의 제2위 교역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국의 정부가 기울이고 있는 관심과 노력은 아직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우리 교민들이 민간 외교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은 그만큼 더 막중해졌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고국의 정정(政情)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새해를 맞는 우리 교민들의 마음도 한편으로 착잡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숭한 시련 속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보란 듯이 성공시켰던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17년에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행복 그리고 축복만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7년 1월 1일 정유년 새해 아침
한인회 명예회장 승은호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 양영연

편집인 : 강희중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홍석영

편집위원 : 신돈철, 최인실, 황미리, 황윤홍

취재기자 : 전민규

전화 : (021) 521-2515, 527-2054

팩스 : (021) 526-8444

주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해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한 해동안 한인뉴스를 후원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인뉴스 발행인 양영연 배상

저희 한인뉴스는 한인동포들이 좀 더 편하게 유익한 정보와 한인사회의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동포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참여로 한인뉴스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뉴스 편집인 강희중 배상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화 : 021-521-2515

새해입니다.

해야 할 일 만큼이나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나이 들에 따라 늘어납니다.

두 가지 모두 의지를 갖고 실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다.. 가 꼬리를 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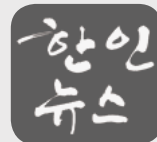
방어기제에서 시작된 약자의 '자체검열',

수월한 목적달성을 위한 강자의 '길들이기'가

조직과 단체에서 벌어지는 불쾌한 활용이 아닌,

스스로 단단해지는 긍정적인 면의 기분 좋은 활용이 되는

정유년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46

편집장 홍석영

차례

- 12 2017 정유년 신년 연하장
- 14 [신년사] 조태영 대사
양영연 한인회장
승은호 명예회장
- 22 논설위원 칼럼 / 김문환 논설위원
- 26 이선진전대사의 대사일기
"경제에 매달리다"
- 34 2017년 단상 <한인뉴스 편집부>
- 36 각계 각층의 신년사
- 37 공감 <조현영>
- 38 2016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를 돌아보며
- 46 이민국 규정변경 안내 <우리 컨설팅>
- 48 에피소드 / 바퀴벌레 이야기 <배동선>
- 52 인도네시아의 중고나라 Kaskus와 OLX <박상훈>
- 54 최진열의 경제를 말하다
- 55 JIS 소식 <정주은>
- 56 2016년 12월 월간 뉴스 브리핑
<자카르타 경제신문>
- 60 지상 갤러리 <권미선>
작가 허필석
- 62 행복 에세이 <노명화>
- 64 이 표현이 맞나요? <최서혜>
- 68 인도네시아 민법 (12) <이승민>
- 72 김종성의 생활 법률
- 77 JIKS 소식
- 81 생활정보



2017 정유년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dqddoodle]



사진설명: 하야성명을 읽어 내려가는 수하르토 대통령

정권의 종말

글: 김문환/논설위원

우리 한인사회는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가원수가 19년 전 탄핵의 위협을 받고 하야하는 과정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 왔던 탓에 작금 고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현상이 자꾸 그 당시의 형상에 오버랩 되곤 한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결정적 주도세력이 국회였으며 대규모 반정부시위가 동반되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나누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 한인사회는 최근 어떤 시위나 소요사태가 예견되는 경우 악성루머에 흔들려 대뜸 ‘5월사태’ 상황과 직결시키려는 성급함을 보이기도 한다. 어언 반세기의 역사를 넘어서고 있는 우리 한인사회도 이제는 이곳 사회현상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성숙함을 보여야 할 때라고 본다. 필자는 ‘5월폭동’ 이라고도 부르는 사건팩트를 당시의 언론보도와 사후 저작물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재구성하여 보면서 우리 한인사회가 이를 반면교사로 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1997년 말 정권말기 징후가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는 스산한 사회분위기 속에 마침 태국발 IMF 사태가 쓰나미처럼 인도네시아에 상륙하자 민생고에 허덕이던 국민들을 대변하여 대학 캠퍼스 내에선 연일 ‘개혁’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성토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국민들의 열망을 담은 민중의 소리는 교문을 박차고 거리로 나오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1998년 5월 12일 일몰시간 서부자카르타에 소재한 뜨리삭띠 대학 시위대가 교정으로 되돌아가는 시각에 4명의 대학생이 저격을 받아 희생된다. 소위 ‘5월 폭동’의 방아쇠가 당겨진 셈이다. 그 다음날인 13일 오전, 4명의 ‘개혁운동의 순교자들’을 마지막으로 떠나 보내는 장례식이 뽀독이다 지역 따나 꾸시르(Tanah Kusir) 공동묘지에서 거행된다. 유족은 물론 동료 학생들이 오열하는 가운데 몇몇 여학생은 졸도하기도 하였다. ‘Gugur Bunga(꽃은 떨어지다)’라는 진혼곡이 흘러 나오자 식장의 분위기는 더욱 처연해지고 있었다.

지난 수개월간 개혁운동의 멘토역할을 자임하며 대학생들의 선봉에 섰던 무하마디야 총재 아민 라이스(Amien Rais)를 비롯하여 재야세력의 지도자들인 메가와띠, 알리 사디킨, 에밀 살림, 꺾 끼안 기 등의 얼굴이 TV 화면이 비춰지고 있었다. CNN 방송 마이크가 아민 라이스 코앞에 다가왔다. 그는 옆에서 슬픔에 젖어있던 전국이슬람학생연맹(KAMMI) 의장인 화흐리 함자(현 국회부의장)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던지고 있었다. “화흐리, 신의 이름으로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겠네.”

장례식이 끝나자 교정에서는 수도권 각 대학에서 모여든 학생들에 의한 시국토론회가 열리고 있었다. 12시 정오 시간대, 캠퍼스 밖에서 학생들의 집회를 관망하던 시민들이 감정에 북받쳐 인근지역을 지나던 차량들을 정지시켜 과속하기 시작했다. 어느 누군가가 인근 주유소에 방화하자 굉음과 동시에 그 일대는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군중은 인근 토파즈 쇼핑몰을 약탈하며 폭도로 돌변하였다. 오후 2시경 근처를 지나던 두 대의 트럭이 탈취되었다. 한 대는 그대로 전소되었으며, 나머지 한 대는 폭도에 의해 질주시켜 인근 파출소로 돌진하도록 폐달 위에 통나무를 얹어놓고 그 자신은 직전 뛰어 내렸다. 이 트럭은 무고한 한 고교생을 희생시키며 파출소를 대파시켰다. 또 한 무리의 폭도들은 고속도로로 진입하여 바리케이드를 치고 약탈과 폭력을 자행하였다. 수카르노 핫따 국제공항에서 영문도 모른 채 시내로 들어오던 화교들과 외국인들이 지갑을 털리거나 몽둥이로 내려친 파편에 맞아 피를 흘리기도 하였다. 화교로 오인된 한국인 피해자도 속출하였다.

카이로 시간 저녁 6시 15분 대사관 관저, 이슬람국가정상회의에 참석 중이던 수하르또 대통령은 동포간담회를 열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국내 사태를 언급하며, “만약 국민들이 원한다면 사임할 용의가 있다는 폭탄발언을 내뱉었다. 그러나 국내의 하비비 부통령은 어떤 긴급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각하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위란또 국군사령관이 처음으로 마스크에 등장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다. “우선 4명의 대학생 사망에 대해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현행법에 의거하여 철저히 사건경위를 조사하겠습니다.” 이틀째인 14일 새벽 6시 할림공항엔 위란또 국군사령관, 빠라보워 전략사령관을 비롯한 다수의 군수뇌부가 모여들어 동부자와 말랑(Malang)으로 향하는 허큘리스 군용기 트랩을 오르고 있었다. 전략사령부 직속부대인 ‘신속대응타격대’를 예하 제1사단에서 제2사단 소속으로 이관하는 행사에 참석하고자 함이었다. 군수뇌부가 자카르타를 등진 이날 폭동의 규모는 더 확대되어 자카르타 전지역으로 번지며 통제불능 상태로 빠져들고 있었다. 꼬따 지역 화교들이 주 타겟이 되고 있었다. 이날 오후에는 북부자카르타 구능 사하리(Gunung Sahari) 지역에 있는 최대재벌 림수룡의 자택이 공격을 받아 폭도들에 의해 가재도구가 박살나고, 그의 초상화는 무자비하게 짓밟히고 있었다. 말랑에서의 행사를 마치고 오후 늦게 귀임한 위란또 사령관은 밤 9시 30분 처음으로 군작전회의를 주재하였다. 수도권 치안유지를 위해 특전사는 정, 부통령의 관저, 전략사령부는 공공기관, 해병대는 외국공관을 사수하도록 분담되었다.

5월 15일 금요일 새벽 4시 수하르또 대통령 일행은 이집트에서의 일정을 하루 단축하고 급거 귀국하였다. 이른 아침 대통령 관저에선 하비비 부통령, 주요각료, 위란또 장군 등이 모여들어 2시간 반 동안 긴급각료회의가 열렸다. 아직 변두리 지역에서 산발적인 약탈이 계속되었지만 자카르타의 상황은 전체적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이틀간의 폭동으로 자카르타 지역에서만 288명 사망, 101명 부상 등의 인명피해와 53곳의 쇼핑센터 및 시장, 4천여 곳의 가게, 12곳의 호텔, 1,119대의 차량, 821대의 오토바이, 1,026대의 가옥 및 교회, 9군데의 주유소등 엄청난 물질적 피해를 가져왔다. 사망자의 대다수는 약탈을 위해 들어갔다가 화염에 갇혀 미처 현장을 빠져 나오지 못한 약탈자 자신들이었다. 특기할 사항은 100여건 이상의 성폭행 범죄가 있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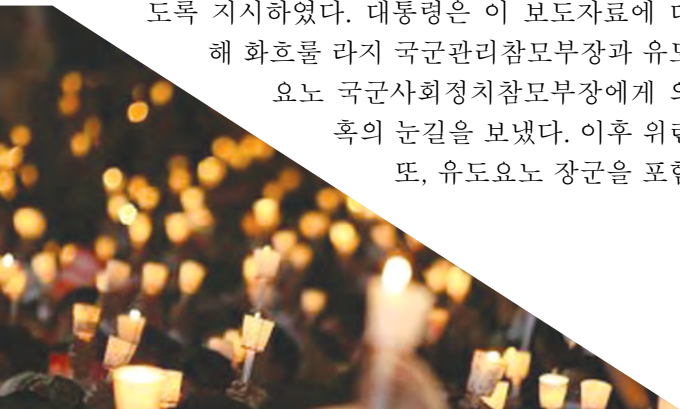
이 범죄의 피해자들은 주로 화교계 부녀자들이었다. 5월 15일 금요일 기도시간 직전, 수하르또는 공보부장관을 통해 며칠 전 이집트에서의 ‘사임 발언’에 대해 해명하였다. “만약 국민이 본인을 신임하지 않더라도 무력을 통해 권력을 유지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나는 신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5월 16일 토요일, 수하르또는 자택에서 국회 의장(MPR/DPR)인 하르모꼬 등 의회지도자들을 접견하였다. 하르모꼬 의장은 국민의 염원을 전달한다며 개각 및 국민협의회(MPR) 임시총회를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수하르또는 개혁은 중단없이 진행될 것이며, 개각은 곧 단행될 예정이나 임시총회건은 즉답을 피하였다. 직후 우이대학(UI) 대학 총장 아스만 부디산또소 총장이 들어섰다. 2시간에 걸친 면담 중 총장은 ‘수하르또의 사임을 권고한다.’는 학장단 명의의 성명서를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이 된 것은 개인적인 의지가 아니며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전권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들이 진정 원한다면 하야 못할 이유도 없다.”라고 반응하였다.

5월 16일 저녁 8시, 위란또 사령관의 기자회견 전에 국군공보국장이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하였다. 그 내용에는 ‘대국민사과’와 더불어 ‘수하르또 사임을 지지한다는 5월 15일자 NU의 입장에 찬성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회견이 시작되어 위란또 장군은 마이크를 잡자마자, 대통령의 긴급호출을 받아 회견을 중단하고 황급히 빠져나갔다. 위란또가 대통령을 접견한 직후 수하르또는 브라보워와 무흐디 장군을 불러 대통령의 사임을 주장하는 군의 여론이 사실인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지시하였다. 대통령은 이 보도자료에 대해 화호를 라지 국군관리참모부장과 유도요노 국군사회정치참모부장에게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이후 위란또, 유도요노 장군을 포함

한 수뇌부 장성들이 곧 체포될 것이란 소문이 파다했다. 그 중 제1 타겟은 유도요노 장군이었다. 다른 소식통에 의하면 위란또와 그 측근장성들이 난국타개를 위해 쿠데타를 일으켜 대권을 잡을 것이란 소문도 돌았다. 어쨌든 두가지 풍문의 중심 인물은 유도요노 장군에게 모아졌다. 유도요노 장군은 부인과 차남을 자신의 국군사령부 집무실로 피신시켰다. 장남은 육군사관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그리고 특전사 정예요원 4명의 경호를 받았다. 마침 특전사 제1여단장이 유도요노의 처남 에디 위보위 대령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5월 18일 월요일의 아침이 밝았다.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도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란 기대감이었을까? 그러나 자카르타의 관문인 수카르노-하타 공항은 이상기류가 감돌았다. 화교계와 외국인들이 속속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타고 온 고급승용차를 측석에서 처분하는 장면도 엿보였다. ‘국민계몽일(Hari Kebangkitan Nasional)’인 5월 20일을 가하여 재야 지도자인 아민 라이스가 주도하는 ‘100만명 민주행진’이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 벌어질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대탈출소동이였다. 대통령궁 턱밑인 모나스 광장에서 100만명이 운집하는 행사에 대해 군부는 이를 방관할 수 없었다. ‘제2의 천안문사태’를 각오하고라도 이를 무력으로 극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미국 정부는 필리핀 수빅만에 정박중인 제7함대 소속 함정 수척을 발리섬에 파견하여 자국민 후송작전을 펼치고 있었으며, 일본정부는 특별기를 철새없이 띄워 국민들을 귀국 시켰다. 한인사회도 동요하기 시작했다. 국적기를 증편하였으나 한계가 있었다. 항공표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자 진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가족우선 대피작전으로 나갔다. 가장들은 그대로 남아 직장가 가정을 지키기로 목매되었다. 해병전우회 회원들은 빨간 모자를 쓰고 방망이를 하나씩 들었다.



5월 18일 저녁 국회의사당, 하르모꼬 의장은 “국회 원내 교섭단체들이 대통령의 퇴진을 권고하기로 합의하였다. 즉각 사임하지 않으면 국민협의회 임시총회를 열어 탄핵으로 갈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대통령의 총복이었던 하르모꼬의 충격적인 배신이었다.

5월 19일 화요일, 대통령은 군부지도자인 위란또, 뿌라보위가 배석한 가운데 이슬람 종교지도자 9명을 궁으로 초치하여 의견을 경청하였다. 중용을 지키며 존경받던 누르홀리스 마짓(Nurcholish Madjid)이 가장 큰 목소리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였다. 아울러 재야에선 아민 라이스가 ‘100만 민주행진’을 강행할 것이라며 수하르또의 목을 계속 조르고 있었다. 근로자연맹도 행진에 가담할 것이라 하여 원군이 되어 주었다. 또 다른 측근 기난자르 경제조정부장은 골까르당 소속 12명의 경제각료들의 일괄 사표를 모아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다. 재기불능의 강편치를 맞은 것이다. 국내의 사임압력이 절정에 이르자 울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 클린턴 대통령, 토니 블레어 영국 수상, 존 하워드 호주수상도 돌아가며 전화를 걸어 수하르또의 사임을 권고하였다. 하르모꼬 국회의장은 고립무원에 빠진 수하르또에게 “5월 22일 금요일까지 사임하지 않으면 탄핵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최후 통첩하였다.

D-day 인 5월 20일 새벽 4시, 아민 라이스의 목소리가 새벽 긴급뉴스를 타고 긴박하게 흘러 나온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 오늘 오전 열릴 예정이던 민주행진을 취소한다.” 후일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전날 밤 늦게 전략사령부 참모장이 아민측에 전화 걸어 만약 민주행진이 강행될 시, 피바다를 불러올 것을 각오하라고 아민에게 직접 경고하였던 것이다.

결국 민주행진은 시작 몇 시간 전에 전격 취소되어 안도하였지만 대통령은 ‘국회의 22일한 사임 최후통첩’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고민에 싸였다. 5월 20일, 군부의 정치담당 총책임인 유도요노 장군은 재차 각계 원로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신의 비망록에 이렇게 적고 있었다. <5월 21일 정치개혁위원회 발족, 22일 개각, 28일 대통령 사임>. 이날 오후 유도요노 장군의 직속상관인 위란또 사령관이 대통령 관저에 들어섰다. “각하, 국군은 더 이상 각하를 지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는 각하가 탄핵을 받는 불명예를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일격이었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유도요노 장군은 대통령 측근으로부터 내일 아침 전격 사임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군부가 정해놓은 28일에서 일주일 앞당겨 하야하기로 대통령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5월 21일 목요일 아침 10시 대통령궁, 생존하는 국가원수 중 쿠바의 카스트로 다음으로 가장 장기 집권한 수하르또는 무려 32년간의 통치를 마감하는 찢막한 사임서를 직접 읽어 내려가고 있었다. “본인은 이제 국정수행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경제각료의 집단사임, 최근 발족시킨 개혁위원회를 거부 당하는 등 아무도 본인과 함께 일하기를 원치 않았기에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통령인 하비비에게 자동적으로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직이 승계됩니다.” 곧이어 대법원장 앞에서 하비비 신임대통령이 취임선서를 마치고 뒤로 빠지는 순간, 국군사령관 위란또 대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우리 국군은 국가원수의 교체와 하비비 신 정부를 지지하며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의 안전과 명예를 끝까지 지켜드릴 것입니다.”



대사의 일기 제16화

“경제계에 마다놀리다”(2)

지난 호에 이어

예정대로 3.19 선발대가 서울로부터 도착, 인도네시아 현지 참가자를 포함하여 총 38명의 한국 선발대가 인도네시아 외교부 주선으로 외교부, 경제조정부, 산림부, 공공사업부(건설부), 정통부, 무역부, 투자 청(BKPM), 전력회사(PLN) 및 에너지 관련 경제단체(BIMASENA) 방문, 그리고 현지 언론과의 기자회견도 가지는 등 바쁜 일정을 가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선발대의 규모에 대하여 적지 않게 놀라는 눈치이다.

나는 대통령 안보보좌관에게 전화하여 선발대의 방문 사실을 알리면서 이 모든 것이 노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선발대를 만나 격려해 달라고 하자 조찬을 갖자고 제의하였다. 3.23 조찬 모임에서 동 안보보좌관은 인도네시아가 그동안 몇 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지만 한국과 같이 합의 사항을 조직적으로 성실히 이행하는 국가는 처음이라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4월 한국 경제 대표단 방문 시, 어떻게 하든 SBY와의 행사를 주선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나중 이 약속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 후술)

성공적인 선발대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카르타를 떠나는 날 나의 일기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나만의 불안감을 적고 있다. 우리 산자부 장관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다. 선발대가 도착하는 날, 본부 외교부에 전화했더니 경제 대표단은 예정대로 오겠지만 산자부 장관이 아직도 중동으로 가느냐, 인도네시아로 가느냐를 두고 망설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장관이 오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계와 기업의 규모와 수



준이 크게 달라진다. 장관이 동행하면 국영기업의 사장단이 대규모 참가하며, 기업도 사장을 보낸다. 그러나 차관 이하가 오면 확연히 달라진다.

나는 4월 경제대표단의 방문을 앞두고 경제조정장관, 무역부 장관 등 정부 부처뿐 아니라 경제단체 및 기업인들과도 찾아다녔다. Hadi 선박업계 회장, Ari H.Soemarno Pertamina(석유회사) 사장, Eddie Widiono Suwondo PLN(전력회사) 사장, Anthony Salim Indofood (Salim group) 회장, Luluk Migas(석유청) 청장, Michelle Bimesana 부회장, Sukrisno 석탄 공사 사장, Dedy Sumanagara 비철금속 공사 사장 등 다수 현지 기업인을 만났다. 대규모 한국 기업인이 오는 기회를 활용하여 사업논의도 하고, 양국 기업들 사이 교류의 기회로 활용해달라고 이야기 하였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이겠지만 실무접촉보다는 우선 CEO급을 만나야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대사가 쫓아 다닐 수밖에 없었다. 나로서는 목표를 정해놓고 뛰어다니니 신바람이 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대사의 CEO 면담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를 해야 하는 대사관 직원들은 하루하루가 고단한 일과이였을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나 민간기관의 실무진은 장관이나 사장이 대사를 만나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훈련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사관 직원들은 상대방 실무진을 만나면 거의 백지 상태에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 대사의 기대수준을 도저히 맞출 수 없었다. 나 또한 과거 중국대사관 근무할 때 똑같은 경험을 하였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대사관 직원)들은 지시를 받으면 비록 100%는 아니라도 상당한 수준까지 실행해 내는 능력이 있다.

나로부터 가장 야단을 많이 맞은 직원은 산자부 소속 상무관이였다. 성격과 맷집이 좋고 능력이 있지만 항상 야단을 맞았다. 그 직원에게 “당신이나 야단을 약으로 받아들이면 훌륭한 공무원으로 성장할 것이고, 잔소리로 받아들이면 나에게 대한 원망만 머리에 남을 것” 이라고 하였지만 당하는 심정은 죽을 맛이였을 것이다. 그 직원은 그 후 양국 정상 합의에 따라 한국 공무원 팀을 이끌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 장관실에 파견되어 양국 산업 협력의 교량역할을 하였다. 현재는 공무원을 그만두고 인도네시아 직장을 구해서 자카르타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package project (복합개발 사업)

다른 한편, 본부의 지시대로 대규모 package 사업 발굴에 나섰다. 그 중 두 가지는 내가 인도네시아 이임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업들이다. 하나는, 중부 칼리만탄 고산지대에 있는 고열량 석탄(coking coal) 광을 개발하여 약 120 Km 거리를 철도로 운송, 석탄수출용 항구를 통하여 한국 또는 인도네시아 국내로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석탄광 개발, 120Km 거의 고산 지대에 철도 건설, 철로 변에 대규모 조립사업, 항만 건설 및 필요시 항구에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복합 개발 계획이다. 어렵잡아도 100 억불이 넘는 대규모 사업이다.

또 다른 package 사업은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보조네가라 발전소 건설 사업이며, 한. 인니 정상회담 때 마다 제기해 온 문제이다.

수마트라를 바라보는 자바 섬 쪽 보조네가라 지역에 발전소건설, 발전용 대규모 LNG 터미널 건설, 및 지역도시 개발을 묶어서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 사업 검토를 위하여 대사관 직원(건설교통부 파견 과 산업자원부 파견)을 현지로 파견하여 일차 사업 조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2 건은 대사관 차원에서 더 검토한 후 건의하기로 하고, 이번 경제대표단 방문 시에는 제기하지 않았다.

산자부 장관 앞 편지 발송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4.16자 산자부 장관 앞으로 대사명의로 편지를 발송하였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건의를 포함하고 있다.

- (1) 노무현 대통령의 친서 휴대
- (2) Package Deal 방안 검토: 몇 가지를 건의하였다. 그 중 하나는 석유 채광권과 정유 공장(가능하면 석유 화학공장 건설까지 포함)을 묶는 방안이다. 석유 채광권은 인기가 있지만, 정유 공장 건설은 인니 정부의 incentive(세제 혜택, 수출 허가 등) 부족으로 비인기 종목.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추진하는 방안이다.
- (3) 인니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협력: 미국(일본)과 공동 추진 방안, 아니면 인니와 공동 연구/개발/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 4월 산자부 장관 방문 시 이 방안을 제시하고, SBY 대통령의 한국 방문 시 MOU 체결하자는 방안이다.

동 편지에서 상기 건의와 함께 이번 경제대표단의 방문목표로 3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양국 간 G-G, B-B network을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外換危機 전 인니는 우리 해외 투자의 최대 선호 지역이었지만 최근 수년 서로 망각지대가 되었습니다.

둘째, 인니의 자원, 인프라 포함 많은 사업들을 우리 기업들에게 소개하여 business opportunity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인니 자원 개발 및 인프라 건설에 우리 정부와 기업이 합동으로, 소위 package project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중국이 관·민 합동으로 특정 분야에 “묻지 마 투자” 를 하고 있는 반면, 우리

기업들은 우리 정부 및 금융계의 지원 없는 상태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자원개발 및 장기 인프라 건설 참여에는 “官·民 유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두 장기적이고 대규모 사업들이다. 이 편지에는 우리 경제대표단이 “여느 사절단” 같이 가벼운 기분으로 와서는 안 된다는 나의 심정이 들어 있다. 내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SBY의 10년 집권 가능성이다. 그 당시 SBY의 대항마가 보이지 않아 연임은 무난할 것으로 보이며, 그 경우 2014년까지 집권한다. 이 시기에 한.인니 경제관계의 제2의 도약이 가능한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였다. 우리 경제대표단이 이러한 인니 측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단단히 준비하여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며칠을 고민하여 쓴 편지이다.

3. 한.인니 업계가 다시 만난다

한국 경제대표단이 예정대로 4.29-5.2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다. 산자부 장관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공동대표로 하여 195명 (공무원 10개 부처 40명, 기업인 60 여개 업체 130 여명, 현지 참가 기업 20 여명)이 왔다. 주요 기업인은 LG 그룹 부회장, 산업단지공단 이사장, KOTRA 사장,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대우 Int' 1 사장,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 STX 사장, POSCO 건설 사장 등이 다. 정부 부처는 재경부, 산자부, 건교부, 방산청 국장이 왔으며, 정통부, 산림청, 과기부는 과장이 참석하여 분과별 공동 의장을 맡았다. 8개 분과는 정책, 무역/투자, 자원/에너지, 인프라, IT, 산림, R&D, 방산분과이다. 8개 그룹 회의에서 인도네시아 공동 의장은 각 부처의 부장관, 청장, 차관보 급으로 한국과 격이 맞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으나 뒷줄에는 한국 기업들이 배석하고 있는 만큼 모두 진지하였다. 분과별 토의에 추가하여 일대일 기업 상담도 진행하도록 하였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오찬에는 부통령이 참석하여 오찬 연설을 하였고, 경제조정부 장관(경제부총리), 무역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도 참석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8개 부처를 방문하였다. 경제조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무역부 장관, 산림부 장관, 정통부 장관, 산업부 장관, 연구기술부 장관(오찬), 에너지부 장관(에너지부 청사 내 오찬)이 직접 나와 경제사절단에게 업무를 설명하고 질의에 응답하였다. 인도네시아 주요 경제부처가 총출동한 셈이다.

양측은 앞으로 한국 산업자원부 장관과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경제 부총리)이 파트너가 되어 매년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 회의는 실제 매년 개최되며 양국 정부 사이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유일한 회의이다. (당시 경제조정부 장관은 2009년 SBY의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출마하여 당선)

방문 성과는 무엇인가

이번 방문의 최대 성과는 우리 업계가 인도네시아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단절되었던 양국 업계가 접촉을 시작하면서 우선 사람을 알고, 상대방 사업의 내용을 알아서 사업 개시의 조그마한 단초를 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 대표단이 인도네시아 주요 경제 부처의 장단기 사업 계획, 중점 사업 및 프로젝트를 설명 받은 것만으로 큰 성과이다. 관료사회가 센 인도네시아의 경우, 어느 한국 기업도 개별 접촉을 통하여 이와 같은 종합 계획을 듣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 자신 이번 방문단을 따라 다니면서 많은 정보를 얻는 한편, 부처별 중점 사업 분야를 파악한 것은 큰 득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정보 외에도 구체 사업에 대한 논의도 꽤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예로, 에너지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들이 논의되어 50회의 일대일 상담이 있었고, 정부 간 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하였다.

- Bojonegara 대규모 발전소 설립
- 원전 사업에 관한 양국 협력 사업 합의 (MOU 체결)
- SK/석유공사, 인니 Pertamina간 석유공동 탐사 협력에 관한 MOU 체결

- 인도네시아 기존 정유시설 증대를 위한 공동 연구 및 윤활유 해외 시장 협력
- 남부 수마트라 화력발전소 건설 MOU 추진
- 그해 에너지 서울 포럼 개최 계획 결정
- 남부 수마트라 LPG 개발 사업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논의
- 그외 MOU 체결 또는 논의: 유연탄 공동개발 협력, 직접 석탄액화 공동 사업, 기초 수액 생산 협력 등

이 중 대규모 자본이 들거나 사업기간이 오래 걸릴 것들도 많다. 대규모 사업이나 자원 개발 사업은 타당성 조사, 협상 및 계약, 사업의 집행에 이르기 까지 몇 년에서 십년이상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들은 양국 정부 주도 하에 제기되어 기업인 사이 협의할 수 있는 단초를 열어 준 셈이다. 다만, 정부나 대사관이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갈 수 있으나,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다. 이 부분은 완전히 기업가들의 몫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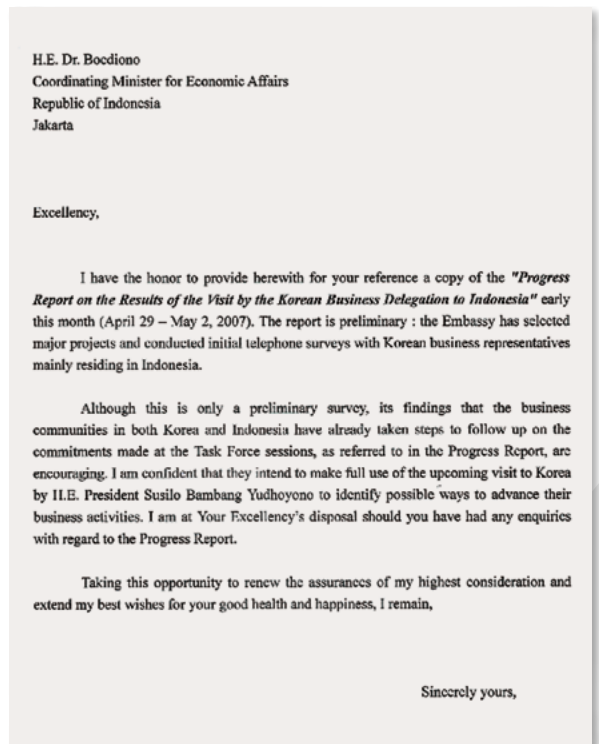
SBY 대통령 면담

방문단 일정의 클라이맥스는 SBY 대통령 면담이었다. 이 면담은 ‘정말’ 우연곡절 끝에 5.2(수) 오후 14:25-15:05 하림공군기지에서 다수의 한국 기업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 접견을 마지막으로 한국 방문단은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그날 저녁 귀국하였다.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소개한다. 산자부 장관이 먼저 노대통령의 지시로 경제대표단이 파견되었음을 설명하면서 노대통령의 안부 말씀과 함께 노대통령의 SBY 앞 친서를 전달하였다. 이어 이번 방문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마지막으로 SBY이 빠른 시일 내 한국을 방문해 줄 것과 인도네시아 투자환경을 계속 개선하여 달라는 요청으로 말을 마쳤다.

이에 대하여 SBY는, “노대통령의 친서에 감사하며, 노대통령과는 친구관계이다. 지난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잘하자는 마음은 인도네시아도 같으며 이러한 마음을 노대통령에게 전달해 주기 바

란다. 정상 간 합의를 조기에 실현하고자 한국 기업인들을 이렇게 파견해 준 노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한다. 한국의 기술과 자본, 인도네시아의 천연 자원과 인적 자원을 결합하여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인도네시아도 중국, 베트남과 같이 투자환경 개선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경제건설 노력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니 한국이 투자환경 개선을 기다리지 말고 즉시 투자에 참여 해줄 것을 당부한다. 인도네시아에 이미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이 지금 잘하고 있고 주민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더 한층 발전시켜나가면 좋겠다. 노대통령에게 뜨거운 인사의 말씀을 전해주고, “빠른 시일” 내 한국방문을 희망한다 (나중 통역자의 설명에 의하면 “빠른 시일”의 의미가 영어의 immediate future에 해당하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함) 한반도의 6자 회담에 진전을 실현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해 주기를 기원한다는 말씀도 함께 전해주기 바란다” 하면서 노대통령 앞 SBY 회신을 대표단에 게 전달하였다.



2007.4. 한국경제 사절단 결과보고서한



2016 한인회 송년의 밤

12월 7일, 재인도네시아한인회(회장 양영연)는 꾸닝안에 위치한 리즈칼튼 호텔에서 ‘2016 한인회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5대 한인회의 첫 송년의 밤 행사에는 조태영 대사 및 대사관 관계자, 지역한인회, 코참, 한인 사회 각 단체장 등을 비롯해 사전에 행사 참가를 신청한 420여명의 한인동포가 참석하여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다사다난했던 2016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행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인회는 세계한인의 날 10주년 기념 KBS 전국노래자랑 본선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이승아씨의 노래와 브라스밴드의 공연, 모처럼 부부와 친구가 함께 사진을 찍는 포토존을 마련하는 등 흥겹고 즐거운 송년의 밤을 펼쳐나갔다.

국민의례와 내빈 소개 후 양영연 회장은 환영사를 통하여 “단기적 성과주의 보다 생산적인 결과를 위해 인내하겠다” 며 “한인동포 사회와 좀 더 원활하게 소통 할 수 있도록 귀 기울이는 한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히고 한 해 동안 한인회의 크고 작은 일에 지원해 준 한인회 임원과 한인동포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조태영대사는 “세계적인 불황으로 더욱 심해진 경기 침체 속에서도 교민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굳건히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모범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해주어 감사하다” 고 인사를 전하며 “서로 화합하여 모든 한인동포에게 도움이 되는 한인회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승은호 한인회 명예 회장은 “전 세계 인도네시아 한인회처럼 문제가 없는 곳은 없다” 며 “한인들을 화합으로 이끌고 버팀목으로 잘 자리하여 더욱 멋진 한인회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2016 자랑스런 한인상 수상자 김영희회장

새로 제정된 ‘2016 자랑스런 한인상’은 쓰레기 마을에 유치원을 설립하여 한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도전과 열정으로 어두운 곳에 빛이 되어주는 루마니아 유치원의 김영희 원장에게 주어졌다. (한인뉴스 2016년 5월호 ‘집중! 이 사람’ 인터뷰 참조)

김원장은 “같이 묵묵히 이 길을 걸어온 자원봉사자들이 있었기에 힘들 때 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며 자원봉사자들과 한인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만찬을 겸한 여흥 순서에는 한국의 유명 개그맨 최병서씨가 사회를 맡아 재치 있는 입담과 진행으로 행사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고, 인기 가수 김수희씨는 자신의 히트곡을 열창해 박수갈채와 환호를 받았다.

2016년의 한인회는 여러 사업 중 ‘한인 구조 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단법인 월드 셰어 한인구조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어려움에 처한 한인동포 각자가 처한 상황에 필요한 구제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

2016 한인회 송년의 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시 : 2016년 12월 7일
 장소 : Hotel Ritz-Carlton Kuningan



코참 '상공인의 날'

GO!

GLOBAL KOCHAM TOGETHER



인도네시아 한국상공회의소(KOCHAM, 회장 송창근)는 2016년을 돌아보고 다가올 2017년을 위해 '한국상공회의소 상공인의 날'을 14일, 임페리얼 골프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150여명의 한상 회원들이 참가해 오랜만에 만난 회원들과 환하게 웃으며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1부 상공인들의 친선도모를 위한 골프 행사 후에 2부 행사에서는 참석한 인사 소개에 이어 한 해 동안 한국상공회의소가 활동한 모습과 회원들의 골프티샷 영상을 선보였다.

조태영 대사와 양영연 한인회장의 축사에 이어 승은호 한인회 명예회장의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자주 연락하며 지내자”고 당부했다. 이어 “새해 건강을 위하여”의 건배제의와 함께 만찬 행사가 진행됐다.

조태영 대사는 “경제발전은 곧 국가의 발전이다. 경제가 튼튼할 때 다른 부분도 발전할 수 있으니 코참이 교두보 역할을 잘 해주길 바란다.”며



“대사관도 한인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양영연 회장은 “우리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코참이 내년에도 올해와 다름없이 기업들이 편하게 사업할 수 있게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만찬과 함께 시작한 3부 행사는 경품추첨과 트로트가수 서지오씨의 화려한 공연으로 분위기가 한층 뜨거워졌다.

한편, 2016년 4월 매경 미디어 그룹은 송창근 코참 회장을 ‘2016 대한민국 글러벌 리더’로 선정했다.

2017년 단상(斷想)

자 카르타주지사 입후보 등록 마감일인 2016년 9월 23일 저녁, 10년간의 대통령 임기를 끝내고 은둔할 것만 같았던 유도요노 전 대통령이 정치대부로서의 역할을 몸소 실천하였다. 아무도 예상 못했던 ‘아구스-실비아’ 카드를 던진 것이다. 유도요노의 장남 아구스는 ‘부전자전’이라는 사자성어대로 육군사관학교 수석졸업생으로서 근무성적이 탁월하여 언젠가는 국가지도자로서 정치일선에 등장하리라는 것은 점쳐지고 있었으나, 이렇게 현실로 빨리 다가오리라고는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일개 육군소령이 설마? 적어도 별을 한 두개는 달아야지...”

그러나 이러한 정치평론가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신의 한 수’가 던져진 것이다.

그로부터 약 2주가 지난 10월 초, 몇몇 여론조사기관의 결과를 보면 아후 44%, 아구스 22%, 아니스 20%로 여전히 아후의 강세가 유지되었으나 ‘아후 형사처벌’을 슬로건을 내건 강경이슬람 세력이 10월 14일, 11월 4일, 12월 2일 대규모 유세를 감행하면서 민심은 동요한다.

12월 중순 유력지 콤파스의 여론조사는 아구스 37%, 아후 22%, 아니스 20%로 역전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아구스의 주행이 순탄하게 굴러가는 경우, 이는 2019년 대선까지로 연결되어 인도네시아 정치지도는 세대교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크게 요동칠 것이다. 한편 불패의 신화처럼 보였던 아후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 결과에 따라 후폭풍의 강도가 드러날 것이다. 2014년 제정된 지방행정법 제23호는 “정,부 지자체장은 부패, 테러, 국가안전에 반하는 형사범, 또는 5년 이상의 실형 선고에 해당하는 기타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의회에 제안없이 잠정적으로 해임될 수 있다. 이 경우 내무장관은 법원의 공식요청서를 첨부하여 대통령에게 직무정지를 제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차 시위로 예정된 12월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쿠데타설이 급속히 유포되자 경찰청은 11월 4일 시위 당시 반정부 선동에 앞장섰던 12명을 긴급 체포하였다. 이들 중에는 수하르또 정권 당시 재야 운동가인 스리 빈땅 빠몽가스를 비롯하여 수까르노 초대 대통령의 둘째딸 라흐마와띠, 전 전략사령부 참모장 키블란 쟈 예비역 육군소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군부정치의 뿌리가 깊은 인도네시아 정국에 쿠데타 설은 혼란기마다 꾸준히 튀어나오는 단골 메뉴이기도 하다. 군부와 인연이 전무한 조꼬위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의 입장에서 군부 및 경찰청과의 스킨십을 통해 혹시 있을 수 있는 불장난을 예방하겠다는 입장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본 이슈는 조꼬위 대통령이 ‘11월4일 시위에 배후가 있다’라는 언급을 한 직후, 유도요노와 주고받은 상호 비방전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조 꼬위 대통령이 2019년 연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상황의 호전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12월 아구스 중앙은행 총재는 국회답변에서, 국가재정부족 현상이 예상보다 심화되어 더 많은 예산절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외국자본의 이탈을 초래하며 취약한 펀더멘탈로 이어져 경제후퇴를 가져오게 된다. 조꼬위 대통령은 219조 루피아 세수부족이 발생하자 103억 루피아 재정지출을 삭감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세수목표를 너무 높게 잡았기 때문이다. 재정지출 감액으로 인해 금년도 성장률은 0.1% 후퇴하여 4.9%~5.3%로 예상된다. 스리 물리야니 재무부장관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개발 프로젝트 연기, 예산삭감 외에 지자체 지원금 연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2016년초 8.4조 루피아를 1차 삭감한 데 이어 제 2차로 6.9조 루피아의 예산을 삭감하였다.



이로 인한 여파로 인프라투자 연기를 불러와 저성장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러나 ‘트랜스 파푸아’, ‘트랜스 자바’ 고속도로와 같이 급년 중에 완공될 우선프로젝트는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세 수보전의 한 방편으로 2009년 광업법개정을 통해 수출이 금지된 원광석에 대해 이를 완화시키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동(銅) 콘센트레이트 수출기한 연장 및 수출품목 증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2017년 1월 11일까지 결정된다 한다.

한 때 주가총액 1위였던 바끄리그룹이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부채총액 153.3조 루피아 중 절반이 2016년 말에 상환기일이 도래한다. 석탄산업의 부진으로 광업분야 부채만 96조 루피아를 차지한다. 바끄리 그룹이 끝내 파국을 맞을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후유증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끄리그룹과 동종업체인 아다로사는 전력사업에 치중하여 위기를 탈출하고 있다. 토지 수용 문제로 지난 4년간 보류되었던 중부자와 바탕(Batang) 발전소사업이 진전을 보고 있다. 이도 추사와 합작인 본 사업은 총 42억불이 투자되는 동남아최대 규모(2,000메가와트)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된다. 아울러 아다로사는 태국전력청에 자사지분 12%를 매각하여 사업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일 관제철소 제1단계를 완공하고 제2단계사업 추진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던 KS-포스코는 최근 인도네시아 5개 언론사 간부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포항, 광양, 포스텍 등지를 견학시켰다. 포스코측은 이 자리에서, ‘자동차강판을 위한 냉연, 갈바나이즈 제품을 생산하려는 니폰스틸, 수미토모와의 합작사업이 포스코에 그리 불리하지 않다.’ 며 종전보다 다소 유연한 입장을 취하였다.

10 월 24일,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인도네시아가 주문한 두번째 잠수함이 진수되었다. 1번함은 2016년 3월 24일, 3번함은 국영조선공사(PT.PAL) 에서 대우조선해양측과의 협력 하에 12월에 착공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1980년대에 건조된 독일산 잠수함 두 척을 운영 중이며, 2020년 퇴역예정이다.

온 통 먹구름으로 뒤덮인 경제상황에 다소 희망적인 기사도 나온다. 지난 11월 팜오일, 석탄 수출 반등에 힘입어, 11월까지 77.9억불의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다. 팜오일은 20% 상승하여 160억불, 석탄은 10% 증가하여 130억불의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다.

해 양조정부라는 신설부서를 맡고 있는 루훗 빠자이판 장관이 여타 경제장관을 앞질러 중형무진 활약하고 있다. 12월 일본을 방문하여 외무장관, 교통장관, 국방장관, 관방장관 등 실세장관을 상대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자카르타-수라바야 준고속철 건설, 빠뎀반 심해항 건설, 마셀라 가스전 등 초대형사업이 아젠다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 결과는 2017년 1월 중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아베총리와 최종 타결할 것으로 보인다.

‘66 세대’의 아이콘으로 ‘Mr. Clean’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1990년대에 국세청장, 재무부장관을 역임하며 청렴성의 표상이 되었던 마리 모하맛 전 적십자사 총재가 뇌졸중으로 사망하였다. 대를 잇고 있는 스리 물리야니 장관은 조세사면제도가 종료된 후 과연 세무, 재정행정 면에서 어떤 카드를 들고 나와 납세자들을 쥐어짤지 신경이 곤두서고 있다.





종교계 지도자들 신년사, “위기는 기회”

정유년(丁酉年) 새해에 종교계 지도자들이 신년사를 발표했다. 새해에는 대통령 탄핵 결정과 대통령 선거 등 험난한 정치일정을 앞두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종교지도자들은 국민의 안녕과 함께 정치·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기원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한국 사회는 변화와 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 전화위복(轉禍爲福)의 자세로 새해를 열어나갈 때 새 희망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특별히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으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주창하며 온전히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 운동을 전개했다. 변화의 시작은 회개이며 반성이다. 죄의 길에서 돌아설 때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조성암 대주교

우리 시대의 개인적·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한자어로 ‘위기(危機)’는 ‘기회(機會)’라는 단어와 같은 한자를 공유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위기를 회개의 기회로, 개인과 사회가 행한 잘못된 결정들을 바로잡을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원불교 경산 장응철 종법사


무엇보다 마음에 공들이고, 일에 공들이고, 사람에 공들이는 데에 힘써야 한다.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전쟁과 평화, 이 모든 것은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복을 받기도 하고 그 능력을 평가받기도 한다. 지금 국가와 세계는 새로운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 난관을 역사발전의 커다란 경중으로 삼아서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새로운 평화세상을 여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불교에서 닦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군다리보살(軍荼利菩薩)의 화신이며 약사여래를 수호하는 12나한 가운데 진달라(眞達羅)를 상징한다. 진달라는 부정과 불의로 인한 고난으로부터 일체 중생을 구제하시는 호법신장이니, 그 기운과 복덕이 모두에게 두루 가득한 정유년의 되기를 발원한다. 우리가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한다면 역사는 정유년을 희망과 행복의 해로 기록할 것이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자세로 끊임없이 발전과 성숙을 위해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덕은 어제와 다른 오늘을 위해 희망을 갖고 노력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모두가 나사렛 성가정(聖家庭)을 본받아 사랑과 나눔 안에서 큰 기적을 이루어내기를 바란다. 희망찬 새해, 여러분과 가정에 하느님의 평화와 사랑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작은 주머니 속에 꼭 찬 행복
2017년의 시작

Seren taun에서 만난 꼬마@Kuningan, Jawa barat
© 2016, Cho Hyun Young (ajuma86@hotmail.com)

2016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를 돌아보며



2016년 1월 20일 양영연 한인회장의 취임식이 있었다.

한인사회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큰 박수로 새롭게 출범하는 제 5대 한인회장의 취임을 축하해주었다.

이전의 한인회가 화합과 비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제 5대 한인회는 한인들의 화합을 정착시키고, 그 시너지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는 한인회가 될 것이다.

3월 10일, 한인회는 양회장님의 공약 중에 하나였던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총 연합회 결성을 위한 각 지역한인회 대표 11명과 함께 만남을 가

졌고, 해외의 어느 한인회보다 더 결속하고 화합한 모습으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총 연합회'가 결성되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의 역사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남기기 위한 '바른 한인사 소위원회'도 모임을 갖고 이곳 한인사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뜻을 밝혔다.

6월14일, 리즈칼튼 호텔에서 열린 한인회 상반기 정기이사회는 새롭게 도약하는 한인회가 되기 위해 정립해야 하는 사안들을 함께 생각하는 자리였다.





기록으로 남기는 우리 한인 사회의 역사! 바로 한인뉴스 창간 스므돌을 기념하는 행사가 8월 15일에 ‘한인회 임원 골프대회’와 함께 진행됐다. 한인뉴스의 발전에 기여하신 분께 공로패를, 장기 기고자 6명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며 즐거운 축하의 자리를 가졌다.

100여명이 넘는 한인회 임원진들이 친목을 다지고 한인회 청년분과에서 행사의 진행을 주체적으로 이끄는 모습은 우리의 든든한 차세대를 보는 흐뭇한 시간이었다.

3.1절 기념행사, 동포안전 대책회의, 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참여 지원, 2016 한국문화관광 대전 ‘Korea Festival’, 개천절과 국군의 날 경축행사 등 대사관과 협력하여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타국에서의 한인동포안전과 관련, 실질적인 현장주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7월26일, 사단법인 월드쉐어 재외 한인구조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일환으로 끌라빠가 딩거주 김씨의 실명에 처한 눈을 한국의 성모병원과 연결, 수술을 받아 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파라마 아파트의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한인 거주자들의 피해 해결방안을 위해 대사관과 협력했으며, 화재 피해 한인 주민 지원 성금 등을 전달하여 한인들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었다.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선수단 해단식



제97회 전국체전에 출전한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회장 최병우, 이하 체육회) 선수단 해단식이 11월 29일 성황리에 열렸다.

자카르타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해단식에는 조태영 대사, 최병우 대한체육회 회장, 양영연 한인회 회장, 체육회 임원을 포함해 한인 사회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단체장, 종목별 선수단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전국체전 참가 선수단의 활동상이 담긴 동영상 상영과 성적보고를 시작으로 단기 반납, 입상자 수상, 그리고 내빈 축사와 답사 순으로 진행됐다.

최병우 회장은 “지난해 성적에 밀도는 성적표를 받았지만 수고했다는 여러분들의 격려가 많은 위로가 되었고, 선수단과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오늘 해단식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체육발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태영 대사는 축사를 통해 “연세가 많은 분들이 젊은 선수들과 경기를 한다는 것이 어렵다.”며 “엘리트 스포츠도 좋지만 생활스포츠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영연 회장은 “승전보가 울릴 때마다 여러분과 함께 경기장에 있는 기분이었다.”며 선수단에게 특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종현 단장은 “60대가 어찌 20대의 청년을 이길 수 있겠나? 금메달 못 딴것에 너무 질책을 말아달라.”며 테니스와 탁구 종목 등에서 은메달에 그친 것을 아쉬워했고 “매년 메달권에 들지 못했던 축구는 처음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다.”며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또한 “젊은 선수들을 키워 내년 체전에 대비하고 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을 다짐했다.

올해 전국체전은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충청남도에서 열렸다. 인도네시아 재외동포를 대표하여 △축구 18명 △테니스 6명 △볼링 12명 △골프 4명 △탁구 2명 △스쿼시 2명 △태권도 8명 등 모두 8개 종목에 선수 52명과 임원 61명이 참가, 7일간 열띤 경쟁을 벌여 은메달 4개, 동메달 6개를 기록했다.

이날 행사는 개그맨 노우진의 진행으로 흥을 돋우었으며 서울 비즈니스항공권, 삼성 최신 휴대폰 등의 경품추첨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비상 ! 코파 날아오르다

제 8회 범 한국 신발협의회 신발인의날 행사 성대히 열려

지난 1일 인도네시아 최대 한인직능 단체인 재인니 한국신발협의회(회장:신만기/이하 코파)에서 2016년 제 8회 재인도네시아 범 한국 신발인의날 행사가 땅그랑 소재 모던랜드CC에서 성대히 열렸다.

이날 행사에 조태영 대사를 비롯해 양영연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재인니 상공회의소 송창근 회장, 최병우 대한체육회장, 전민식 민주평통 동남아 남부협의회 회장, 배연자 자유총연맹 회장, 한국신발협의회 문창섭 회장(삼덕통상 회장), 이원목 학산회장등 많은 내외빈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매년 열리는 신발인의 날 행사이지만 이번 8회 신발인의 날 행사는 다가오는 정유년엔 다 함께 힘차게 날아오르자는 “비상 코파 날아오르다” 라는 슬로건으로 올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맞이하자는 다짐의 자리가 되었다.

신만기 코파 회장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향후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정확하고 빠른 정보공유를 통해 회원사의 안정적인 경영에 일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매년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시장

변화와 인도네시아 정책변화에 적극적이고 빠른 대응을 통해 우리 회원사 권익을 지켜나가며 더 세련되고 성숙한 코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초기 80여 회원사에서 현재 약 200여업체의 회원사로 형성되어 있으며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많은 업종중 가장 탄탄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한인사회를 지탱하는 버팀목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지 고용인력과 관련 인력 포함 약 100만명의 고용효과로 인도네시아 실업률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과거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었던 신발산업이 스마랑, 수방, 수카부미, 수라바야, 가룟등 점차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어 세계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한국 신발산업의 굵은 뿌리로 자리잡고 있다.

2부 행사에는 초대가수 민해경씨의 공연으로 행사의 열기를 뜨겁게 달구어 모처럼 인도네시아 전 신발인들의 화합과 축제의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이제 2016년을 마감하고 2017년 새해에 힘차게 날아 오르는 코파가 되어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지구촌 구석구석에 한국 신발산업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공: 코파의 힘)

대한민국 관세청 서울세관 수출입지원센터 기업 설명회 개최



대한민국 관세청 서울세관 수출입지원센터(센터장 이진석)는 2016년 12월 8일 대사관에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동 설명회에는 약 30여명의 기업대표들이 참석하여 수출입지원센터 직원들과 열띤 토론과 대화를 진행하였다.

임현철 관세관은 인사말을 통해 국제경제의 침체가 인도네시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로 인해 많은 우리 기업들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대한민국 관세청에서는 우리 기업의 보다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키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중 하나로 각 주요 세관에 수출입지원센터를 신설, 해외통

관 애로 해소 및 수출전략 수립 지원 등, 우리기업의 해외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금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기업과 관세청이 서로의 입장을 보다 잘 이해하는 동시에 나아가 서로 힘을 합쳐 국제 경제의 여러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동 기업 설명회에서 박순태 서울세관 수출입지원센터 계장은 한-아세안 FTA를 비롯한 한국의 FTA 추진 현황 및 각종 Mega FTA 체결전망과 FTA를 활용한 새로운 수출전략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고 이후, 통관애로 등 세관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시간을 가졌다.

우리기업들은 ‘전자통관 시스템 다운문제’, ‘세관직원의 권한 남용’, ‘비현실적인 보세제도’ 등 인도네시아에서 기업 활동을 하면서 체험한 불합리한 제도나 규정에 대해 토로하면서 앞으로 양국 관세청간 이러한 사안들이 논의되어 차후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KOICA, 인도네시아 국가도로통합데이터센터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범시스템 구축사업 제5차 워크숍 개최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KOICA(이사장 김인식)는 12월 15일 인도네시아 반둥시에 소재한 도로공학연구소(Institute of Road Engineering, IRE)에서 인니 전역의 도로 및 교통 자료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방안을 지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가도로통합데이터센터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범시스템 구축사업”의 제5차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는 한국의 오기운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장과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의 공공사업주택부(MPWH), 교통부(MOT), 경찰청과 서부 자바주 및 반둥시의 공공사업주택부, 교통부, 국도관리계획청(P2JN)과 국도운영청(PJN) 등 유관부처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인도네시아는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자료를 수집·관리하는 등 칸막이식 행정과 비효율적인 업무 진행으로 통합된 도로교통 자료가 부재하여 장래 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사업은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하여 10개의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으며, 교육도시로 유명한 반둥시를 대상으로 시범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연말로 예정된 사업 종료에 앞서 관계기관들과 본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오기운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장은 환영사에서 “인도네시아는 교통사고 지점도 담당자에게 문의해야만 알 수 있을 정도로 각 기관에서 따

로 도로를 관리 및 운영해 왔다. 따라서 효과적인 도로교통 계획의 수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계적인 자료 구축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소감을 밝힌 후, “본 사업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국의 선진화된 도로통합데이터 시스템을 적용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동안 관계기관의 이해 부족과 관련 자료 부재, 통신장애 등으로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본 시범사업이 인도네시아 도로교통 통합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였다.

뻬자(Panjza) 도로공학연구소(IRE) 실장은 이에 화답하여 본 사업의 중요성과 성과에 대해 평가하면서 앞으로 체계적인 자료 구축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아울러 업무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 업무 통합을 명시한 관련 법안의 제정을 제안하고, 체계적인 도로교통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우리나라와 KOICA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 날 사업수행기관인 KOTI컨소시엄은 지난 2년 동안 개발한 IRODCO 시스템의 최종 결과와 데이터센터 운영 방식 및 유지보수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KOICA는 이번 워크숍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종료하고, 향후 담당 공무원들이 연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2016 한인 색소폰 동호회 송년 음악회

재인도네시아 색소폰 동호회에서는 2016년 12월 4일(일) 자카르타 꺄망지역에 있는 Swissbel Hotel 에서 ‘2016 한인 색소폰 동호회 송년 음악회’ 를 가졌다.

박의태 회장의 인사말 순으로 1부와 2부로 나누어 연주를 하였다.

전체 합주 2곡을 시작으로 김송안(알토), 박의태(테너), 임채실(알토), 김창식(테너), 이상일(알토), 김우재(테너), 김덕기(알토), 강희중(테너) 회원과 이일하, 최종희(알토)의 특별연주 순으로 연주를 하여 관중들에게서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해마다 연말에 하는 송년 콘서트이지만 회원들의 실력이 향상되어 모든 관객이 아름다운 색소폰 소리에 매료되어 오후 10시 가까이 마쳐도 자리를 뜨는 사람이 없었다.

특히 1부와 2부 사이에 2016년 수라바야 한인회에서 주최한 ‘K-POP 경연대회’ 에서 대상을 받은 Owel 양과 Dini 양의 듀엣은 환상적이었다. 젊은 노래가 아닌 한국 대중가요를 몇 곡씩 연이어 부르는 노래에 모든 관객들은 흥겨운 시간을 즐기기도 하였다. 또한 색소폰을 시작한지 1년 남짓한 김덕기 회원의 ‘Danny Boy’ 연주에 또 한번 놀라는 실력을 과시하였다.

강희중 사회자는 브라스밴드 지휘자 백형균 선생의 말을 인용해 “악기를 연주하면 20년이 젊어진다고 하였다. 수명도 통상 지휘자가 가장 오래 살고, 그 다음이 연주자, 그 다음이 노래를 하

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고 전했다. 색소폰은 복식 호흡으로 연주하여야 하는 관계로 건강이 좋아지고 젊어진다는 것을 모든 관객이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도 하였다.

한국에도 각 지역마다 색소폰 동호회가 있고, 연세가 드신 분들도 봉사공연을 할 수 있어 인생을 보람되고 즐겁게 보낼 수 있으니 색소폰 인구가 지속해서 늘고 있는 현상이다. 인도네시아에도 자카르타에 이어 찌까랑에도 색소폰 동호회(찌색동회)가 생기고 땅그랑에도 동호회가 생겨 인도네시아에도 색소폰의 열기는 더해가고 있다.

인생은 살면서 악기를 하나 다룰 수 있다는 것 만으로도 다른 사람보다 격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색소폰 연주는 내가 즐겁고, 남에게도 즐겁게 한다면 세상 최고의 취미가 될 것이다.

(제공: 색소폰 동호회)





아름다운 나눔 바자회수익금 재외동포 한인구조단의 성금으로 기탁

아름다운 나눔(회장 강희중)에서는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2망 리본몰 아트리움에서 열린 한지공예품, 한국 도자기, 십자수소품 전시회 및 바자회의 수익금을 한인회에 전달하였다. 이 성금은 한인회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한인구제를 펼치는 한인구조단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아름다운 나눔회는 이번 바자가 3회 차로 한인사회의 여러 행사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 중이다. 양영연 한인회장은 “적극적인 재능 기부를 통해 한인사회가 풍요로워지고 있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우리의 문화를 인도네시아에 알리고 재능의 장을 넓혀 다양한 강좌를 여는 등 학교와 한인단체의 협조로 한인사회에 더 확대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 자리엔 바자회를 주도한 강희중회장, 허령(닥종이 인형), 김경애(한지공예), 이수진(헤리티지) 회장이 참석하여 한인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인들도 전시장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며 우리의 전통 예술작품에 관심을 보였다고 전시회의 뒷이야기를 전했다.





이민국 규정변경 안내

최근들어 인도네시아 이민국 규정의 잦은 변경으로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혼선 및 불편함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간략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전 양해말씀 드릴 것은 본 내용은 최근 변경되거나 시행되는 규정을 다루다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않는 곳도 있으니 이점을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규정과 변경된 규정에 대한 비교 설명

규정 변경 전	규정 변경 후
<p>1. 기존 체류비자(ITAS/ITAP)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이민국에 연장접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오버스테이에 대한 벌금을 납부하고 비자 연장진행 가능.</p> <p>① 오버스테이 최대 59일까지 벌금납부 후 비자연장 가능</p> <p>② 60일 이후 벌금 처리 안되며 추방조치 (일정기간(최소 6개월) 인니 입국 불가. 이민국 결정에 따라 Black List 등재여부 결정)</p>	<p>1. 기존 체류비자(ITAS/ITAP)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이민국에 연장접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비자를 말소하고 출국해야함. (오버스테이 허용 안됨)</p> <p>① 이미 오버스테이가 되었을 경우(59일까지), 비자말소 및 벌금 납부 후 출국 하여야 함(비자연장 안됨, 단, 재입국하여 신규비자 진행 가능).</p> <p>② 동일</p> <p>#KITAS->ITAS, #KITAP->ITAP 로 변경</p>

<p>2. 기존 체류비자(ITAS/ITAP) 연장 시 근로허가서(IMTA)가 완료되어야 접수 가능. (근로허가서 진행이 늦어져 이민국 연장접수 전에 비자가 만료되었을 경우 오버스테이 비용을 납부함.)</p>	<p>2. ① 근로허가서(IMTA)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접수증(Bukti proses IMTA)으로도 체류비자(ITAS/ITAP) 진행 가능. 단,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3개월 임시체류비자가 발급됨. 3개월 임시체류비자 일지라도 지역경찰신고서(STM), 동사무소신고서(SKPPS), 지역노동부(Keberadaan)도 의무 진행해야 함.</p> <p>② 근로허가서 완료 후 제3국으로 출국 없이 기발급된 근로허가서 유효기간 내에서 근로가능한 체류비자 연장 진행이 가능함.</p> <p>「surat edaran Menteri Hukum dan HAM RI(법무부 장관 회람) No M.HH-02.GR.01.06 Tahun 2016」</p>
<p>3. 만 18세 자녀의 경우, 문교부와 교육부 추천서를 첨부하여 근로자의 동반가족으로서 체류비자(ITAS/ITAP) 진행이 가능</p>	<p>4. 만 18세 자녀의 경우, 근로자의 동반가족으로서 체류비자(ITAS/ITAP) 진행이 불가능.</p> <p>반드시 학교 스폰서를 통하여 별도 학생비자 진행을 하여야 함. 만일, 체류비자가 연장된 시점에 근로자 동반자녀의 나이가 만 17.5세 (17년 6개월)일 경우 근로자의 비자 유효기간과 관계 없이, 6개월 유효기간의 체류비자만 허용됨. (만 18세가 되는 시점까지만 유효기간이 주어짐.)</p> <p>「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32 thn 1994 Tentang Visa, Izin Masuk dan Izin Kelmigrasian Pasal 45 (비자, 입국허가와 이민허가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령)」</p>
<p>4. 비자케이블(TELEX) 관련</p> <p>① 근로자와 동반가족의 비자케이블(TELEX) 동시 진행 가능</p> <p>② 신청서의 서명은 현지인 노무담당자의 서명으로 가능</p> <p>③ -</p>	<p>4. ① 근로자와 동반가족의 비자케이블(TELEX) 동시 진행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반가족의 비자케이블(TELEX) 발송시 완료된 근로자의 비자케이블(TELEX) 또는 기 발급된 체류증(ITAS/ITAP)이 구비서류로 첨부되어야 함 <p>② 비자케이블(TELEX) 신청서의 서명은 반드시 이사진 중 한 명이 서명하여야 함</p> <p>③ (추가)비자케이블(TELEX) 진행시 은행 통장 잔고증명 요구</p>
<p>5. 외국인 임시체류증(ITAS) 관련 카드형태로 발급</p>	<p>5. ITAS 카드가 폐지되고 여권상 확인 직인 찍힘,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체류허가 확인서 상시 출력가능</p>

제공: 우리 컨설팅



[에피소드] 바퀴벌레 이야기

우여곡절 끝에 현지법인 근무를 마치고 돌아간 서울에서 본사에 사표를 던진 후, 다시 자카르타로 왔을 때의 일입니다.

제대로 된 숙소를 정하지 못한 채 임시로 들어간 코스트(Kost)라는 현지 자취방은 너무 좁고 어수선해 지인에게 맡겨 두었던 짐들은 돌려받을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고작 찾아 온 것이라곤 구식 386 컴퓨터 한대와 그에 딸린 책상 하나가 전부였고 독립 후 첫 사무실이 된 락빠르짜꿍(Jl. Tipar Cakung) 거리의 한 공장 구석방에 그것들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 자카르타 북부 외곽의 주택단지에 입주하게 되었을 때엔 비록 작고 허름한 간이 2층집이었지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생활환경에 난 크게 만족했습니다. 소형차도 한 대 비집어 넣을 주차공간도 있었습니다. 이제 비로서 짐들을 가져올 준비가 된 셈입니다. 그 짐이라는 게 달랑 가방과 박스 몇 덩어리였습니다.

원래 거기엔 버려도 상관없는 물건들만 들어 있어야 했습니다. 철수할 당시 아직 전 직장을 계속 다닐지, 아니면 그만두고 자카르타로 돌아와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던 시절이었으므로 내가 굳이

남겨 두었던 것은 간단한 옷가지들과 버리기 직전인 약간의 주방도구, 낡은 이불보 정도였는데 남다른 준비성을 가진 아내는 다른 요긴한 물건들을 곳곳에 끼워 놓았습니다. 어떤 가방에서는 멀치액 젓도 나왔습니다.

그 가방들 중 한 개의 지퍼를 열면서 난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뭐, 컴컴해서 하나도 안보이네...”

토요일 오후 대낮에 짐을 풀고 있는데도 가방 안이 시커멓게 보이는 건 필시 그림자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옆에서 일을 돕던 에피와 릴리는 같은 직장 OB들이었는데 그들은 그들대로 다른 가방들을 풀며 주방으로, 식탁 위로 분주하게 물건들을 옮기느라 나한테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보였습니다. 가방 안에서 확 풍겨 나와 내 얼굴을 강타하는 시큼한 냄새. 가방 안 그 시커먼 그림자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으아악!!!!”

생전 그렇게 놀란 적이 없었습니다. 막 가방 지퍼 끝까지 밀려 나온 것처럼 보인 그림자는 사실 그 수를 셀 수도 없는 바퀴벌레 군단이었던 것입니다. 가방은 몰려나오기 시작한 바퀴벌레 떼에 과묵히 일순간 사라져 버린 듯 보일 정도였고 밀려드는 파도처럼 서로의 몸 위를 올라타며 무섭게 달려드는 영화 속 좀비들처럼 한꺼번에 몰려나와 거실 타일 바닥에 무너지듯 아무렇게나 착지해 바로 산개하는 바퀴벌레들은 애당초 그렇게 철저히 사전훈련을 받은 것처럼 일제히 사방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까아악!!”

비명 이중창. 에피와 릴리가 동시에 식탁 위로 뛰어 올라가며 비명을 질렀고 질겁한 나 역시 체면을 무릅쓰고 식탁 위로 뛰어 올라가자 이번엔 식탁 다리가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삐걱거리며 휘청거렸습니다. 그 위에서 본 건 얼마 크지도 않은 그 가방에서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바퀴벌레 떼의 노도와 같은 질주였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아내는 그 가방에 순창 고추장을 한 통 넣어 두었던 것입니다.

‘저걸 잡아? 말아?’

그런 생각을 하며 1초 사이에 수백 번은 망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임대한 새 집에서 저 정도 숫자의 바퀴벌레들을 식솔로 거느리고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난 어느새 벗어 든 운동화를 두 손에 들고 번개처럼 식탁에서 뛰어내려 초고속으로 타일바닥을 마구 두드리며 훑어 나갔고 뒤이어 두 여자도 크리넥스 통이며 두터운 전화번호부를 들고 가세하면서 거실에서는 인간과 바퀴벌레들의 불꽃 튀는 사투가 벌어졌습니다.

전쟁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 전투에서 수많은 바퀴벌레 시체들이 거실 타일바닥에 산산조각 나 널브러졌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바퀴벌레들이 후일 게릴라전을 기약하며 어디

론가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길로 ‘바이곤(Baigon)’ ‘히트(HIT)’ 등 바퀴벌레 스프레이 세 통인가를 사 집안 곳곳에 뿌려댄 끝에 상당수의 잔당들을 소탕했지만 그 후로도 오랫동안 바퀴벌레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방천지에 출몰하며 소름을 돋게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바퀴벌레들은 한국 것들보다 훨씬 커서 다 큰 놈들은 보통 검지손가락 크기쯤 되고 제대로 살이 오른 놈들은 그 두 배쯤 되기도 합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 놈들이 스스로 잠자리나 메뚜기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특하면 날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중대한 임무라도 띤 것처럼 더듬이를 곳곳이 세운 심상찮은 표정으로 헬리콥터 소리 같은 걸 내면서 일직선으로 곧장 날아갑니다. 그런 놈이 내 눈 앞으로 날아들면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은 물론이고 뒷덜미가 쭈뼛하면서 머리털마저 곤두서 버리죠.

바퀴벌레 가방을 연 이후로 그런 놈들이 매일 집안에 출몰했습니다. 가방을 집 밖에서 열었어야 했다고 후회했지만 이미 었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잘 때 안경과 자명종시계가 놓인 머리맡에는 살충제 스프레이도 늘 한 통을 놓아 두어야 했습니다. 간혹 대청소를 하다 보면 침대 밑에 죽은 바퀴벌레들이 우글거렸는데 그 놈들은 옷장 속이나 신발 속, 심지어 양복 주머니까지 정찰대를 보냈다가 전우의 시체를 한두 마리씩 남겨놓고 사라지곤 했습니다.

옆집이 이사간 후 바퀴벌레들 상당수가 그 빈 집으로 이주했는지 때를 지어 출몰하는 일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업하던 동료들이 종종 자카르타에 출장 나왔는데 짤돌이 박사장은 절대 호텔에 묵는 법이 없는 번거로운 친구였습니다. 당시 에어컨 달린 방이 하나 뿐이어서 박사가장이 출장 오면 같은 방에서 함께 자야 했으니 말입니다. 난 침대 밑, 옷장 속, 창고로 쓰던 간이 2층의 작은 방까지 철저히 살충제를 뿌리고 대청소한 후 공항에서 박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내 일인용 침대에서 멀쩡이 떨어진 문간에 꺼내놓은 손님용 매트리스에 박사장 잠자리를 마련해 놓고 잠을 청하려는데 어디선가 낮은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난 이 소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퀴벌레가 천위를 기어 다니는 소리죠. 잡으려 들면 순식간에 도망칠 테니 여기서 관건은 우선 소리만으로 그 구체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미리 마음 속으로 결정한 무기를 단숨에 집어 들고 소리가 난 지점을 재빨리, 온 힘을 다해 가격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 불도 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내 침대 안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난 은연 중에 내공을 청각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포착한 위치는 바로 내 배게 밑. 소름이 돋았어요. 아까 오후,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열심히 뿌려댄 살충제에 대한 복수였을까요? 바퀴벌레 수뇌부는 내 침상에 자객을 침투시킨 것입니다. 무서운 놈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객들을 상대할 적당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아! 골프채가 있습니다. 침대 발치의 방문 뒤쪽에 세워둔 골프가방이 있었습니다. 입주 초창기엔 그 골프가방 안에서도 죽은 바퀴벌레들이 1개 중대는 나왔고 그 중엔 아직 시퍼렇게 살아 있는 놈들도 있어 7번 아이언으로 거실 타일 위에서 미친 듯이 스윙연습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골프채한테 좀 미안합니다. 필드엔 거의 데려가 주지 못하는 주제에 주로 그런 특수용도에만 쓰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바퀴벌레들이 나한테 양심을 먹은 건 그 간의 학살현장을 돌이켜 보거나 전화번호부로부터 시작해 점점 더 창조적으로 선택되고 있는 신무기들을 생각해 보면 무리도 아닙니다.

자, 이제 작전개시입니다. 침대에서 강시처럼 몸을 화들짝 일으켜 세우며 몸을 날려 골프가방에서 7번 아이언을 뽑아 들고 전등 스위치를 올리는 데까지 0.8초. 그리고 배젓닛이 헤어지도록 골프채로 두드려 패는 건 1분. 잠들다가 화들짝 놀라 깬 박사장은 어안이 멍멍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배젓닛 밑을 들춰보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동안 경험치를 한껏 높인 내 바퀴벌레 레이다가 잘못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침대 쿠션을 살짝 들춰보니, 아니나 다를까 바퀴벌레 두 마리가 허둥지둥 퇴로를 찾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두 손으로 킁킁거리며 들어 올리던 무거운 침대 쿠션이 초능력자가 된 것처럼 아드레날린이 마구 분비되는 초긴장상태에서 한 손으로 핵 제쳐잡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골프채로 가격! 침대의 나무가 퍽! 하며 먹어버리는 소리를 내지만 바퀴벌레들은 A4용지 두 장 두께 차이로 몸을 피합니다. 내 스윙의 정확성을 믿어서는 안되는 일이었어요. 남들이 재봉틀 박듯 쪽쪽 직선으로 나가는 골프코스에서는 나는 촌촌하게 오버로크 치며 버벅거리는 실력이었거든요.

회심의 일격을 피한 바퀴벌레들은 침대 밑으로 급속 행군! 이번엔 무서운 힘으로 침대마저 한 손으로 핵 제치면서 다시 한번 골프채로 망치질! 하지만 바닥 타일만 힘없이 깨질 뿐 바퀴벌레 두 마리를 지그재그를 그리며 쏠살같이 빠져나갑니다. 이제 골키퍼와 일대일 상황. 박사장이 자기 앞으로 달려드는 바퀴벌레들을 향해 갑자기 베개를 집어 듭니다.

퍽!

“야! 잡았어! 잡았어!”



베개로 그 밑에 깔린 바퀴벌레들을 압박하면서 싱긋 웃고 있는 박사장 이마에 땀방울마저 송글 거립니다.

“잠깐 기다려! 놓치면 안돼!”

이젠 어쩔 수 없습니다. 제 몫을 못한 7번 아이언을 엉망진창이 된 침대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 놓으면서 잠깐 3번 우드를 생각해 봤지만 여전히 어렵도 없고 결국 한 멧힌 전화번호부를 거실에서 갖고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벌어진 잔혹한 장면들은 차마 눈뜨고 키보드 두드릴 수 없습니다.

자객들을 처치하고 나니 급격히 피로가 몰려 왔습니다. 박사장의 얼굴은 여전히 상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때 또 들려오는 소리.

바스락...

그럴 리가요? 바퀴벌레 수뇌부가 제 2의 자객팀을 보낸 걸까요?

“또 있어. 가만히 있어 봐.”

“다 잡았잖아? 난 아무 소리도 안들리는데...?”

이번에는 머리 위에서 나는 소립니다. 문득 고개를 드니 커튼 레일링 위에서 내밀던 머리를 흠칫도로 집어넣는 녀석이 보였어요.

“저 위!”

내가 벌떡 일어서자 박사장도 영겁결에 따라 일어나며 커튼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놈은 항공단 소속입니다. 커튼 위에서 기도비닉을 유지하며 침착하게 사태를 주시하던 이 놈은 상황이 불리함을 보고 내뺄 심산이지만 빨간 마후라답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로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각질 날개 밑의 잠자리 날개 같은 것을 활짝 편 이놈은 순식간에 커튼 위에서 이륙하며 급강하, 저공비행을 감행한 것입니다. 푸타타타 하며 예의 그 헬리콥터 소리 같은 것을 내면서 말입니다.

“우와아아아아악!!!”

이 비명은 박사장이 지른 것인데 나중에 그가 애써 변명한 말을 옮기자면 자기 코앞으로 날아들던 바퀴벌레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지만 내가 급히 몸을 돌리며 7번 아이언을 다시 잡는 모습에 질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도 내 실력을 아는데 박사장 얼굴을 향해 예의 살인적인 스윙을 할 리 없는 일입니다.

뒤로 엉거주춤 물러서던 박사장은 이불이 발에 꼬이면서 엉덩방아 찧고 뒷통수를 벽에 냅다 부딪히고 말았어요. 그런 그의 이마 위를 스치듯 지나간 바퀴벌레는 열린 문을 통해 거실의 어둠 속을 날아 유유히 사라져 갔습니다. 적이지만 대단한 놈입니다.

그날 가벼운 뇌진탕을 일으킨 박사장은 그 후 자카르타에 올 때마다 호텔에 투숙하는 좋은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끝>

인도네시아의 중고나라 Kaskus와 OLX



박상훈 (sanghoon.pak@gmail.com)
Worldwide Logistics Indonesia 법인장

새해가 밝았습니다. 독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에는 저와 함께 더 스마트한 방법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경우 많은 분들이 중고나라를 통해서 중고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들도 중고나라 밴드를 통해서 많은 중고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릴 적만 해도 남이 쓰던 물건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중고거래를 통해서 알뜰한 살림을 꾸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인도네시아에는 이런 중고나라가 없을까요?
요즘 인도네시아도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는 곳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중고나라의 대표적인 서비스 Kaskus와 OLX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KASKUS (www.kaskus.co.id)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야기할 때 결코 빠질 수 없는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사이트입니다. 한국에 네이버와 다음이 있다면 인도네시아에는 KASKUS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비해서 그 위상이 많이 줄었다고는 해도, 여전히 KASKUS는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사이트이고, 인도네시아 현지인에게는 인터넷의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Forum(한국으로 따지면 Community)을 중심으로 뉴스, 리뷰, 쇼핑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ASKUS 포럼의 경우 다음

카페나 아고라와 비슷한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상징성은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KASKUS의 경우 한국에서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듯이, KASKUS에 물어보면 거의 안 나오는 정보가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KASKUS의 경우 인도네시아적인 포털의 형식을 가져가게 되면서, 중고거래와 개인 간 거래의 중심이 됩니다. 지금은 아래에 설명드릴 OLX에 커머스 거래에 대한 트래픽을 많이 빼앗기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개인 간 거래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2) OLX (www.olx.co.id)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APP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 중고거래만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 개인간 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아이템을 광범위하게 다룹니다. 자동차에서부터 집을 구할 때까지 모든 부분에서 요긴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실제 이 회사는 특이하게도 인도네시아 회사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내에서 개인 간 거래, 중고거래, 부동산 및 차량 거래를 대표했던 Tokobagus라는 회사를 남아프리카 회사인 OLX가 인수했습니다. Tokobagus 이외에도 한두 개의 비슷한 카테고리의 회사를 함께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적인 서비스에 익숙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서비스입니다. Alexa(전 세계 인터넷 사용 순위를 제공하는 사이트) 인도네시아 순위 22위인데 반해, 과연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곳입니다. 간단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다양한 카테고리에 자신의 광고를 무료로 올릴 수 있는 곳입니다. 오픈마켓(Ebay, Tokopedia, Qoo10, Elevenia 같은)처럼 결제와 에스크로가 이루어지는 않습니다. OLX만의 에스크로 서비스가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아직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에스크로(escrow) 서비스란? 상거래 시, 판매자와 구매자의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삼자가 중개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보통 온라인 상에서는 Marketplace가 구매자에게 대금을 먼저 받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물건을 보낸 것을 확인한 후에 판매자에게 대금지급을 하는 것으로 에스크로가 이루어집니다.

이 서비스를 주목해봐야 할 이유는 현재 가장 많은 개인 간 거래와 중고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트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개인 간 거래의 특성상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각종 메신저를 이용한 거래 또한 엄청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개인 간 거래라 불리는 거래 형태가 인도네시아 온라인 커머스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사실 정확한 규모를 알아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OLX의 경우 APP을 사용하면 다양한 옵션을 적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개인간 직거래가 많은 특성 상 자신과 판매자의 거리까지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핸드폰이나 카메라 같은 중고거래를 제법 하는 편인데, 조금만 신경을 쓰면 좋은 물건을 거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 중고거래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Kaskus와 OLX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간 거래의 특성 상 항상 이런 거래를 하실 때는 여러가지 부분에 주의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오늘 글 마무리하겠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 (Re-denomination, 화폐단위 조정)

글: 최진열 부장(KEB 하나은행)

2016년 중 인도네시아와 한국 모두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논의가 각각 진행되었다.

리디노미네이션이란 화폐 개혁의 일종으로 화폐의 실질가치 변동없이 모든 액면단위를 동일한 비율로 낮추거나, 새로운 통화단위로 바꾸는 것을 일컫는 경제용어이다.

통상 화폐의 액면단위가 너무 큰 통화를 대상으로 100:1, 1000:1 등 일정 비율로 축소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 100,000원에서 0을 세개 떼어 내고 100원 단위로 바꾸자는 식이다.

한국은 과거 두 차례의 리디노미네이션 경험이 있다. 1953년 1차 시행에서 화폐 액면금액은 100분의 1로, 화폐단위는 ‘원’에서 ‘환’으로 조정되었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통화 대외가치가 폭락한 데 따른 조치였다. 1962년 단행된 2차 리디노미네이션에서는 화폐단위가 ‘원’으로 환원되는 동시에 액면 역시 100분의 1로 조정되었다. 화폐개혁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로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인도네시아 역시 루피아화 액면단위를 1000분의 1로 축소하는 화폐개혁을 2012년 추진한 바 있다. 루피아 액면단위가 아세안 국가 중 베트남 등에 이어 두번째로 커 다양한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하지만, 2013년 6월 미국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제기 등에 따른 환율 급등 및 물가상승 우려를 이유로 루피아 화폐단위 조정은 수면 밑으로 가라 앉은 바 있다.

리디노미네이션의 장점으로 회계기장 및 거래단위 표시의 편의성이 높아진 점을 우선 꼽을 수 있다. 아울러 통화의 대외위상 제고와 함께 화폐 교환 과정에서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기대할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금융자산 총액이 이미 2010년 이후 1경원을 넘어선 바 있다. 0을 무려 16개 붙여야 하는 천문학적인 숫자이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의 많은 레스토랑에서는 이미 메뉴판 기본단위를 1루피아가 아닌 1000 루피아로 표시 중이다. 시장에서는 화폐단위의 불편함을 해소할 자구책을 나뉠 시행 중인 셈이다.



반면,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는 리디노미네이션 시행 전 반드시 풀어야 하는 숙제로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루피아화의 액면단위를 현재의 1000분의 1로 축소하는 리디노미네이션을 2017년 중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월20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의 아구스 총재가 조코위 대통령에게 루피아 리디노미네이션 추진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데 이어, 조코위 대통령이 의회 차원의 법안 검토를 언급함에 따라 리디노미네이션 추진 논의는 향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이 “7년에 걸친 점진적인 추진”을 주문함에 따라 경제 충격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추진이 예상된다.

현재 인도네시아 루피아 권중 중 최고 액면은 10만 루피아로서 라오스 5만 킵, 필리핀 1천 페소, 태국 1천바트, 말레이시아 100링깃 등 아시아 경쟁국 최고액면과 비교 시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루피아 화폐단위 축소 필요성과 현실점에서의 추진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시각이 많다. 환율과 물가가 어느때보다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및 기준금리 인상으로 신흥국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가운데서도 인도네시아 루피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 왔고, 물가상승률 역시 정부 목표치 내에서 관리 중이다. 루피아 통화단위 조정이 성공할 경우 G20 국가 중 달러 대비 네자리 수 이상의 환율을 가진 나라는 한국밖에 남지 않는다. 한국으로서는 또 한번 통화단위 조정 압력이 거세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나만의 잣대



(학생기자 JIS 정주은)



우리 집에는 특별한 개가 있다.

어렸을 적부터 보이는 정서 불안으로 붙여진 이름, 깽깽이. 깽깽이는 눈도 못뜨고 어미 젖을 빨 때부터 다른 강아지들과 달랐다. 한 젖을 오래물지도 못하고 열댓마리 새끼 강아지들 사이에서 뜨지도 못한 두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며 허우적 거렸다. 그래서인지 깽깽이는 그 어느 강아지들 보다 순하고 약했다. 닫혀있던 대문 밖으로 그 깃발 같은 꼬리를 신나게 흔들면서 온동네를 휘젓고 다닐때도 고양이를 보면 깃기만 할 뿐 앞발을 사납게 휘두르며 달려든 적은 없었다. 그 혼한 쥐도, 늙어서 생명이 다해가는 쥐를 물고 자랑스럽게 어머니 손에 쥐어주려고 하던 적이 두어 번도 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햇볕의 온기가 남아있는 저녁 현관에서 깽깽이를 무릎에 누이며 쓰다듬어 주고 있을 때 깽깽이의 낡은 냄비 밥그릇이 달그닥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전부터 밤 늦게까지 공부할 때면 들리던 정겨운 소리였다. 나는 그저 그러려니 깽깽이를 쓰다듬고 있었다. 그러다 밥 그릇 소리가 멈추지 않아 그 쪽을 보았더니 손바닥만한 쥐가 밥그릇에 서서 낡은 밥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소스라치게 놀란 나는 깽깽이에게 쥐를 잡으라고 하였지만 깽깽이는 아무렇지 않게 내 손길이 멈추지 않기를 원할 뿐이었다. 그 전부터 깽깽이가 쥐를 못 잡아 깽깽이를 많이 나무랐던 나는 깽깽이가 그 작은 쥐도 못 잡고 밥까지 뺏긴다는 마음에 분하고 속이 상했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퇴근하고 현관을 들어설 때 그 달그닥 거리는 깽깽이 밥통 소리는 깽깽이가 내는 소리가 아니라

쥐의 것이라고 일렀다. 당연히 아버지가 놀라며 깽깽이를 나무랄 줄 알았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다. 아버지는 그 쥐를 깽깽이 밥 그릇이나 훔치는 더러운 쥐로 보지 않고 깽깽이와 함께하는 존재로 보시며 너무나도 좋아하셨다.

깽깽이와 함께 하는 존재.. 그랬다. 나는 내 자존심 때문에, 깽깽이가 쥐보다 못하다는 그 생각이나 때문에 깽깽이의 외로움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다. 어미 없이 살면서 느꼈을 깽깽이의 외로움을 우리 가족의 사랑이 충분하다고 믿었기에 너무 무지했음을 깨달았다. 무엇보다도 내 무의식적인 자존심이 깽깽이를 이해 못 했음이 미안했다.

학교를 다니다보면 자신의 자식만이 귀족이고 보물이며 자랑인 아주머니들을 보며 힘들었던 적이 많다. 그들은 자식들의 동급생들의 모습과 소문으로 평가하며 자신의 귀한 자식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 짓는다. 그 모습이 화로 다가오고 억울함으로 다가온 적이 많았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속에는 그들과 같은 모습이 있었다. 나는 그저 깽깽이가 쥐도 못 잡고 그 더러운 쥐와 같은 밥 그릇을 핥는게 내 자존심으로 이해할 수 없었었다. 내 자존심이 깽깽이를 내 속에 묶어 두려고 했던 것이다. 그저 깽깽이는 바보가 아니라 착한것이고 약한 것이 아니라 순한 것 뿐이다.

깽깽이를 나만의 잣대를 갖고 판단했던 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었다. 나도 결국엔 남과 같으면서 나만 다르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었던 계기도 됐었다.

2016년 12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자카르타경제신문(pagi.co.id)

“1천 루피아를 1 루피아로” 인니, 화폐단위 변경 재추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이 19일 발행한 루피아화 신권 (사진:안따라)

인도네시아가 루피아화의 액면단위를 현재의 1천분의 1로 축소하는 화폐개혁을 4년만에 재추진키로 했다.

20일 주간 템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구스 마르토와르도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총재는 전날 기자들을 만나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대통령에게 루피아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 법안 처리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구스 총재는 루피아화 환율과 경기가 안정세를 보이는 시기에 화폐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피아화 환율이 1달러당 1만3천 선을 넘는 등 액면가가 너무 커서 거래나 계산, 회계처리 등 경제활동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2012년에도 루피아화 액면단위를 2022년까지 1천분의 1로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2013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환율이 요동치는 바람에 중도 포기한 바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아구스 총재의 요청을 받아들여 “의회가 내년도에 관련 법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리디노미네이션은 7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루피아화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과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최근 신흥국 환율이 요동치는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왔다.

전문가들은 지난 7월부터 실시된 조세사면으로 4천조 루피아(358조 원)에 달하는 국내외 은닉 자산이 양성화된 것이 루피아화 가치를 떠받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날 자카르타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루피아화 환율은 달러당 1만3천448 루피아에 거래를 종료했다.

“IS, 필리핀에 거점 옮기는 중…인도네시아에 큰 안보 위협”

극단주의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가 거점을 중동에서 필리핀 남부로 옮기고 있어 인도네시아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인도네시아 군(TNI)이 밝혔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포스트의 7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총참모총장인 가토티 누르만토요 장군은 6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테러리즘 관련 세미나에서 반(反) IS 국제 연합군의 공세에 밀려 이라크와 시리아 등지에서 세력을 잃고 있는 IS가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수라웨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필리핀 민다니오 지역에 새 거점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인도네시아까지 IS 세력의 침투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가토티 장군은 테러단체들이 IS의 새로운 거점 설립에 드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필리핀 남쪽 영해에서 수많은 납치극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군은 “나는 이미 6개월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 IS가 그곳(남부 필리핀)으로부터 인도네시아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가토티 장군은 IS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경제적 논리에 의해 움직인다고 주장했다. 이때문에 IS가 수익성이 떨어진 중동을 버리고 동남아에 본부를 마련하려 한다는 것이다.

IS 연계단체로 알려진 아부사야프는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선원들을 납치해 수백만 달러의 몸값을 요구하는 것으로 악명 높다. 이들이 현재까지 모은 몸값의 총액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필리핀 매체 인콰이어러의 지난 10월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아부사야프가 인질들의 몸값으로 벌어들인 돈은 최소 3억 5300만 페소(약 82억 3000만원)에 달한다.

아부사야프는 IS의 최고지도자(칼리프)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에게 충성을 맹세한 바 있다.

테러 전문가 알차이다르는 알바그다디가 직접 남부 필리핀을 동남아시아의 IS 거점으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알바그다디가 인도네시아의 선동적 종교지도자이자 테러단체 ‘자마트안샤루트다울라’(JAD) 지도자인 아만 압둘라만을 동남아시아 리더로 임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만은 현재 수감 중이라고 알차이다르는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대테러청(BNPT)은 JAD가 현재 인도네시아 내에서 가장 위험한 테러단체라고 밝혔다. 티토 카나비안 인도네시아 경찰청장도 JAD가 지난 2002년 발리 테러사건을 일으켰던 알카에다 연관단체 ‘제마 이슬라미야’(JI)보다 훨씬 극단적이고 위험한 단체라고 밝혔다.

알차이다르는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로힝야족 무슬림 학살이 동남아 지역 내 IS 위협을 급속도로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로힝야족이 미얀마 정부군에 맞서 싸울 경우 IS가 이것을 동남아에 ‘전사’ 들을 보낼 핑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알차이다르는 “로힝야 무슬림이 반격을 할 경우, IS는 이들에게 지원군을 보낼 정당할 이유가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로힝야족 무슬림 탄압에 대한 반대시위는 이미 인도네시아 무슬림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거리에는 다양한 이슬람 단체 회원들 수천명이 나와 미얀마 정부군이 ‘로힝야족에 대한 집단학살’을 벌이고 있다며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민국, 입국비자 대행 신청 금지…입국심사 투명성 높인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대행업체를 통한 입국비자 대리 취득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악덕 대행업체들에 의한 과도한 대행수수료 취득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지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법무 인권부의 이민국 हे루 산토소 대변인은 “대행업체를 통한 입국비자 대행 신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이달 14일부터 적용됐다. हे루 대변인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입국심사의 투명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대행업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신청자 본인이 수속할 필요가 있지만,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당

국은 소속 회사의 직원이나 대행업체가 아닌 개인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인정하고 있다”고 말하며 “개인 대리인도 신청 대행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오히려 뇌물수수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관계자는 “현재 자카르타의 일부 관리국에서는 신청자의 신분증(또는 사본)과 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을 통한 신청을 받고있어 혼란스럽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민국은 외국인 일시 체류 허가증(KITAS) 폐지도 검토 중이다. 각 이민국에서는 KITAS 재고가 없어지는대로 수시 발행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카르타 이민국에서는 이미 발행 정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감산 거부로 OPEC 회원국 자격 정지



인도네시아가 석유수출국기구(OPEC) 재가입 1년 만에 다시 회원국 자격이 정지됐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모하메드 빈 살레 알사다 OPEC 의장은 이날 오스트리

아 빈에서 열린 OPEC 정례회의에서 “원유 감산 분담을 거부한 인도네시아의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OPEC 회원국 수는 13개로 줄어들게 됐다.

1962년 OPEC에 가입한 인도네시아는 국내 석유소비량이 늘면서 2000년대 초반 원유 순수출국에서 순수입국으로 지위가 바뀌었고, 2009년 OPEC을 탈퇴했다가 지난해 말 복귀했다.

원유 순수입국이란 입장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45달러 수준에서 유지되길 원하면서 감산에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람 모욕' 항고서 낭독하며 눈물흘린 바수끼



13일 첫 공판 이후 바수끼 주지사를 안아주는 양누이 나나씨(사진:폼빠스)

이슬람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50) 자카르타특별주지사(현재 휴직 중)의 첫 공판이 13일 자카르타 북부자카르타에서 진행됐다. MUI 파트와호위국가운동(GNPF MUI) 측은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가 이슬람을 모독했기 때문에 징역 6년을 선고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피고(바수끼)는 특정 종교(이슬람)에 대해 의도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으며 이는 모욕 및 모독이다” 라고 주장했다.

공판에서 바수끼는 검찰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 낭독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내가 이슬람을 모욕했다는 주장은 내가 양부모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다” 며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했으며 “나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 교육과정 동안 모두 무슬림 선생님께서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꼬란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고 설명했다. 그는 “이슬람교를 모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며 기소사실을 부인했다.

바수끼는 실제 술라웨시 마까사르 부키스 출신의 무슬림 양부모와 양형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공판에는 바수끼의 양자매인 나나 리와야띠씨가 함께 했다. 현지 언론 폼빠스는 13일 보도에서 공판이 끝난 이후 무슬림 여성들이 착용하는 질바를 쓴 나나씨가 바수끼를 안아주며 위로하는 모습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바수끼 주지사는 오전 7시 15분경 자택에서 출발해, 북부자카르타 지방법원에 공판에 출석했다. 반바수끼 시위가 발생할까 우려한 경찰은 이날 법원 앞에 병력 약 700명을 배치해 경계를 강화했다.

한편 바수끼의 변호인단은 총 80명으로 다음 공판은 20일 열린다.



바다로 가는 길... 작가 허필석

작품을 처음 접했을 때 마치 저 길 너머 그리운 이가 걸어오고 있을 것만 같은 아련함을 느꼈다. 어머니와 인연이 짧았던 나. 행복은 주관적이라 했던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나, 그러나 그 옛날 어머니 품이 내 우주였던 그 시절이 참으로 그리워지게 하는 작품이다.

작가 허필석은 어릴 적 깊은 산골 작은 마을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앞뒤로 큰 산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기에 늘 '저 산 너머엔 뭐가 있을까?' 라는 상상을 하곤 했었다. 나름 여러가지 생각이 그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지만 유독 떠나지 않은 그것은 '저 너머엔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있을 것' 이라는 믿음이었다.

실제 바다를 보지 못한 그로서는 산 너머의 세계를 그저 상상만 해볼 수 밖에 없었으며 그런 그에게 바다는 유년시절의 신기루와 같았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높기만 하던 그 산을 올라 가 보았다. 하지만 정상에서 내려 본 반대편은 똑같은 산들이 중첩되어 있을 뿐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평범한 모습이었던 것이었다.

훗날 그 지역은 바다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는 그 때 그 산에 올랐던 사실을 무척이나 후회했었다. 막연한 기대감을 조금이라도 오래 간직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있어야 할 바다는 없고 끝없는 산봉우리들만 그의 눈 앞에 겹쳐 보일 뿐이었던 그 풍경은 마치 '꿈(=바다)' 이라는 이상을 동경할 여유조차 없이 반복되는 우리네 일상과도 같은 것이다.

허필석 작가는 많은 실제 풍경들을 그려왔다. 앞으로도 그는 그럴 것이다. 풍경은 그만의 휴식과 같고, 또 다른 세계에 대한 희망인 셈이다. 그 풍경은 실제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 자신만의 프레임 안에서 재탄생한다. 그의 마음의 길이요 풍광인 것이다. 길은 굽이굽이 끝없이 연결되어지고 산과 들은 저 너머로 끝없이 중첩되어진다.

늘 그의 머리 속엔 어린 시절 실루엣처럼 어렴풋이 남아 있는 상상 속의 풍경에 집착되었고 걸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것을 표현하려는 의지가 작품 속에 내재 되어있다.

그는 구상 작가이다. 하지만 그는 손과 눈과 머리보다는 감성을 애절하게 표현하는 '가슴' 으로 그리는 작가이고 싶다. 붓으로 물감을 풀어서 캔버스에 그의 구상 능력을 맛깔 나게 그려 나가고 노력하는 구성 작가... 그의 작업은 전통적인 재료를 쓰지만 작업 과정에선 정해진 순서가 없다. 우리가 배워왔고 알고 있는 방식을 취하진 않는다. 흰 캔버스에 임의로 정한 부분부터 그가 쓰고 싶은 색으로 붓 끝에 힘을 실어 표현하고 그 다음에 대한 계산을 하지 않는다. 그저 표현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따라 갈 뿐이다.

그의 작품은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신기루를 보이고 싶어한다. 그는 바다, 산, 그를 그리고 있다.

작품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애뜻한 기다림과 그리움, 따뜻한 꿈과 희망이 작품을 보는 관객의 정서에 온기 있는 위로를 전할 것이다.

권미선 (인니미협)







비 오는 날의 추억



노 명 화 / JIKS국어과교사, 문협인니지부 회원
nomyong@daum.net

오늘도 이곳, 자카르타는 비가 내린다. 먹는 것을 좋아하는 나는 비가 오면 먹고 싶은 것이 더 많아진다.

뜨끈한 어묵도 먹고 싶고 해물파전도 생각한다. 해물파전은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엄마표 해물파전이 최고다. 온갖 해산물을 다 넣어서 만든 파전이니 맛이 없을 수가 없다. 노릇노릇하게 갓 구워진 해물파전을 후후 불면서 간장에 살짝 찍어 먹으면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맛이다. 특히 오징어와 쪽파의 환상적인 조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갓 담은 엄마표 김치가 있다면 금상첨화다. 김치한 포기를 꺼내와 파전과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다. 당연히 김치는 손으로 쪽쪽 찢어 먹어야 제맛이다. 생각만 해도 침이 꼴깍 넘어간다.

새해가 다가오니 유난히 한국이 그립다. 한국에서는 오늘처럼 비가 와서 날씨가 쌀쌀해지면 길거리에서 파는 어묵을 먹곤 했었다. 어묵을 한 입 베어물고 뽀얀 김이 나오는 노르스름한 국물까지 후루룩 마셔주면 온 몸이 녹는 기분이었다.

떡볶이도 빼놓을 수가 없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일명 ‘물떡볶이’로 빨간 국물이 자작하게 있는 것이다. 한 때 나는 우리 동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떡볶이가 먹고 싶어서 남의 동네에 원정을 가기도 했다. 주말마다 어김없이 참새가 방앗간을 들리듯 들리다보니 나는 자연스럽게 그곳의 VIP 고객이 되었다. 갈 때마다 아는 체를 해주며 나의 안부까지 물어봐주시는 아주머니의 센스도 알아줘야했다.

가끔씩 아주머니께서는 나에게 새로 만든 튀김을 맛볼 기회를 주시기도 하셨다. 먹어보고 튀김 맛을 평가해 달라는 것이었다. 물론 맛보기용 튀김은 공짜였다.

그 순간만큼은 절대 미각을 가진 미식가로 변신하여 얼마나 성심 성의껏 시식을 했는지 모른다. 시식 후에는 아주머니께 튀김의 촉촉함과 식감 등을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렸었다. 시간이 지난 후 시식한 튀김이 정식 메뉴로 팔릴 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아주머니께서 아실는지 모르겠다. 뿐만 아

나라 새 튀김 첫 시식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오지랄 넓게, 새 튀김이 얼마나 팔리는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를 묻기도 하였다. 새 튀김 반응이 좋다는 말씀을 듣고 나도 모르게 박수를 치며 소리를 질렀던 기억도 난다. 그곳은 다양한 튀김을 골라먹는 재미도 쏠쏠했다. 좋아하는 새우튀김이나 김말이 등을 섞어서 아주머니께 건네면 꼭 한번 더 튀겨서 파스하게 주실 뿐 아니라 다른 튀김을 은근슬쩍 더 넣어주시면서 VIP 고객 대우를 후하게 해주셨다. 남들과 같은 가격, 다른 양이었다. 그런 아주머니의 마음에 보답하고자 친구들을 데리고 자주 그곳에 들렀던 것이다.

그렇게 잔뜩 먹고 나면 배도 부르고 나른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얼른 집에 돌아가고 싶어진다. 왜냐하면 만화책을 보면서 방안에서 뒹굴어야 하기 때문이다.

빗소리를 들으면서 방에서 만화책을 읽던 그 때 온돌의 따스함이 느끼지는 방 안에서 시원한 꿀을 까먹으며 만화책을 보고 있노라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다. 당시 내가 빌려 읽던 만화는 대개 순정 만화였다. 옆 턱 선이 곱게 뺀 그와 얼굴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큰 눈망울을 가진 예쁜 그녀와의 사랑 이야기에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던지. 그렇다. 그 때 그 시절이. 그런 날은 잔뜩 먹어 볼록해진 내 배도 그다지 싫지 않는 유일한 순간이었다. 학창시절에는 비를 맞으며 돌아다니는 것도 무척 즐겼었다. 아마 내 인생에서 비를 가장 사랑했던 시절이었으리라. 비가 오기만 하면 친구들과 몰려나가서 거리를 돌아다녔다. 옷이 다 젖어 생쥐 꼴이 되어도 개의치 않았다. 비에 젖은 모습이 웃기다면서 서로를 보며 얼마나 깔깔댔는지 모를 일이다. 그때는 친구들과 함께 비를 맞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재미있었던 것 같다.

그러고 보면 그때는 사소한 일도 큰일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던 시절이라 작은 소문에도 무척 민감하게 굴었었다. 만약에 누군가가 우산이 없어서 비를 맞고 가다가 어떤 남학생이 우산을 씌워주었다면 다음날에 학교가 난리가 날 정도였다.

최고의 관심사는 ‘남학생이 잘 생겼나’ 였다. 그 남학생이 훈남이라는 소문이 들려오기라도 하면 ‘까약’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법석을 떨었었다. 그렇게 부러움 반 질투 반으로 괜히 우산 속 주인공처럼 내가 설레기도 하였다. 그렇게 나도 비 오는 날에 첫사랑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 같다. 비를 사랑하는 남자는 굉장히 로맨틱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말이다. 물론 요즘은 예전처럼 그렇게 비를 맞고 다니지는 않는다.

우산이 없어 어쩔 수 없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감기 들까 겁이 나기도 하고 산성비라는 생각에는 온몸으로 비를 맞아본 일은 기억조차 없다. 게다가 지나가는 차량에 빗물이 옷에 튄까, 신발이 젖을까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른다. 비 오는 날 운전을 해야 하면 신경부터 날카로워진다. 빗길 운전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팍팍한 현실에 찌든 어른이 되어버린 느낌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비 내리는 풍경은 어른이 된 지금도 여전히 좋아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날은 제외다. 반드시 ‘촉촉하게’ 오는 날이어야 한다. 촉촉하게 쏟아지는 비는 질퍽해서 싫고 촉촉하게 오는 비는 기분을 상쾌하게 해 준다. 그건, 순전히 내 기분 탓이다.

이 순간도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다.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니 괜히 센티한 기분이 들어 우아하게 커피를 한 잔 마셔 줘야 할 것만 같다. 오늘 자카르타에는 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다. 타국의 빗소리가 내 마음에 서서히 젖어든다.

곧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다. 새해는 붉은 닭띠 해라고 한다. 처음 이곳,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나는 Cibubur에 거주를 했는데, 인근 집에서 닭을 키우고 있어서 아침마다 우렁찬 닭울음소리에 잠을 깨곤 했었다. 특히 허름한 닭장이 아닌 고급스런 새장에서 닭을 키우는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다. 이는 닭을 아끼는 이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닭은 머리가 좋고 상당히 부지런하다고 한다.

심지어 선경지명까지 있다고 하니 새해에는 이런 닭의 기운을 듬뿍 받아 모든 한인들에게 좋은 일들만 가득 있기를 기원해 본다.



글: 최서혜

10. 임렉(Imlek, 춘절, Chinese New Year's Day)

2017년도 임렉은 1월 28일 토요일이다. 붉은 닭의 해 정유년(丁酉年)에서 닭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고, 십간의 정(丁)은 불의 기운을 의미해 뜨거운 열정과 견고한 에너지를 상징한다. 붉다는 것은 밝다는 뜻이기도 해서 정유년은 '밝은 닭'의 해라고 볼 수 있다.

*임렉에 쓰는 축하 문구

-Selamat Tahun Baru Imlek Gong Xi Fa Cai.

(슬라맛 따훈 바루 임렉 공 시 파 차이)

*앙빠오(Angpao): 붉은 봉투에 넣은 복돈, 빨간 주머니라는 뜻

‘돈 많이 버세요’라는 의미의 중국어 ‘恭喜發財(공희발재)’ = Gong Xi Fa Cai (공시파차이)라고 인사한다. 공희발재의 ‘발(번영, 돈을 벌다)’의 발음이 숫자 8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숫자 8을 좋아한다고 알려졌다. 그리고 금색을 띠는 밀감은 황금을 연상시키는데 밀감 한 상자를 선물하면 금 덩어리 한 상자를 선물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설날 선물로 밀감이 인기다.

11. 바하사 아베게(ABG, Anak Baru Gede) 몇 개만 알아도 쏙쏙!

한국말로 하면 젊은이들이 쓰는 신조어, 은어를 뜻한다. 바하사 알라이(Alay)라고도 불린다. 너무 남용하면 보기 좋지 않지만, 이들이 쓰는 말을 이해하고 한 번씩 사용하면 친근한 이미지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Unyu(운유): 귀엽다. 사랑스럽다. = lucu, menggemaskan, imut

예) *Anaknya Unyu sekali. Ya, ampun dia gemesin banget.*

아기가 너무 귀엽다! 와 진짜 너무 귀엽네.

-Kepo(깨뽀): 궁금증이 많은

예) *Kamu jangan kepo dong, ini rahasia aku.*

너 궁금해 하지마! 이건 내 비밀이야.

-Narsis(나르시스): 공주병, 왕자병 또는 셀카를 많이 찍는 사람을 표현할 때.

예) *Mba Siti itu narsis soalnya setiap waktu selfie.*

시씨는 공주병에 걸렸어. 매 시간마다 셀카를 찍어대거든.

-Bawel(바웰): 말이 너무 많은,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 Cotba(Bacot), banyak omong

예) *Sri itu orangnya bawel sekali. Aku cape dengerin ceritanya.*

스리는 너무 말이 많아. 개가 하는 이야기 듣고 있기가 지쳐.

-Kesal(Kesel, 꼬살, 꼬슬): 짜증나는, 기분이 나쁜 = KZL

예) *Aku pesan taksi, dan aku harus nunggu 1 jam. Aku kesal.*

내가 택시를 불렀는데 한 시간이나 기다린 거 있지. 너무 짜증났어.

-Banget(Bingit, 방웃, 빙잇): 매우, 너무(긍정이나 부정표현 둘 다 가능) = amat, sangat

예) *Aku pengen(mau) bingit sepatu merah itu.*

나 저 빨간 신발이 너무 갖고 싶다.

-Galau(갈라우): 우울한, 슬픈 = melow(멜로우)

예) *Dia lagi galau habis putus sama pacarnya.*

개는 지금 애인이랑 헤어지고 슬퍼하고 있어.

-Gombal(곰발): 기분 좋게 하는 거짓말(립서비스) = bohong

예) *Jangan kamu gombal.*

너 거짓말 하지마.

-Jutek(주뻑): 쌀쌀맞게 구는

예) *SPGnya jutek banget. * Sales Promotion Girls* 영업판매원

직원이 너무 불친절해.

-PHP(빼하빼): 거짓희망을 주는 사람(Pemberi Harapan Palsu)

예) *Kamu jangan PHP-in aku.*

너 나한테 희망고문하지마~

-Kece(깨제): 멋있는, 이쁜 = keren

예) *Wah, Kamu hari ini kece badai.*

와, 너 오늘 엄청 멋지다!

-**Lebay**(르바이): 오버하는 = *berlebihan*
예) *Kenapa sih? Kamu orang lebay banget.*
왜 그러지? 너 엄청 오버한다.

-**Bete**(베떼): 지겨운
예) *Aku lagi bete di rumah. Mau ketemu ga?*
나 지금 집에 있기 지겨워. 만날래 말래?

-**Parno**(빠르노): 무서운, 두려운 = *Parno-parnoan*
예) *Dia parno-parnoan berenang.*
그는 수영하는 걸 두려워 해.

-**Sosmed**(소스멧): 소셜미디어 (SNS)
예) *Lagi ada isu demo di sosmed, dah baca belum?*
지금 소셜미디어에 데모 이슈가 있는데, 읽어봤어?

-**Ciyus**(찌우스): 진짜? 정말?
예) *Ciyus kamu mau resign(mundur)?*
너 진짜 그만 둘거야(회사 그만둘거야)?

-**Mager**(마그르): Malas gerak에서 온 말로 잘 움직이지 않는 것을 뜻함
예) *Kamu mager banget sih? Gerak dong! Jangan mager.*
너 진짜 빈둥거린다. 좀 움직여! 늘어지지 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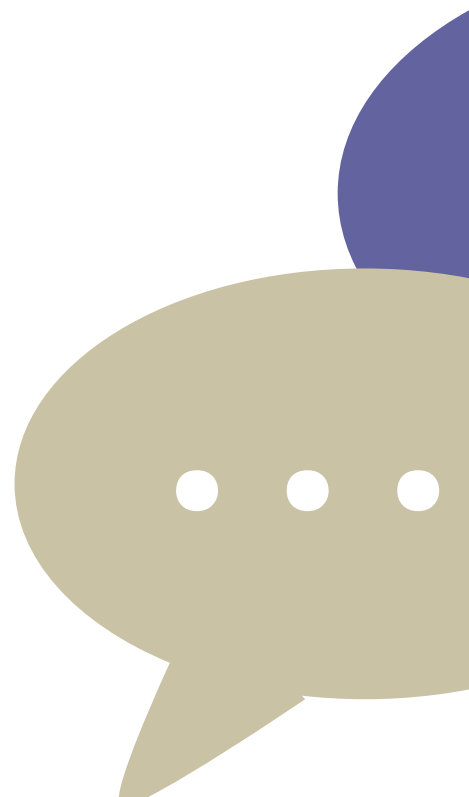
아하! 알쏭달쏭 표현 제대로 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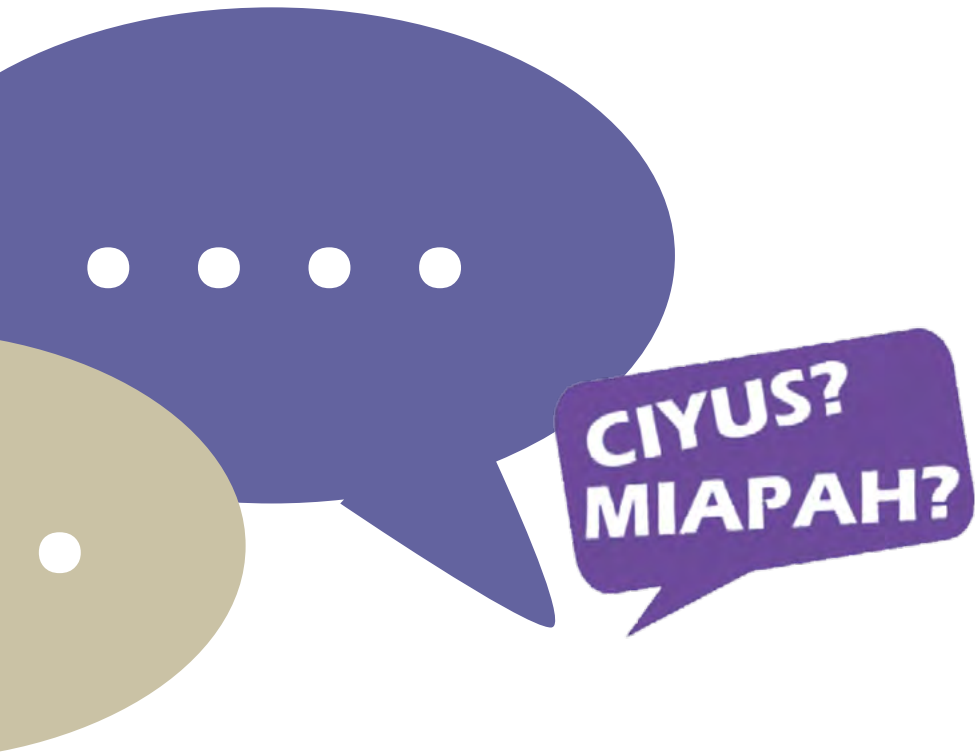
인기 있어 잘 팔리다

Laku 또는 Laris를 사용한다. Buku ini laris sekali.(이 책은 매우 인기가 있다.) 매진! 품절!은 Sudah laku terjual, Habis, Kosong을 쓴다. Laku가 ber-동사 berlaku가 되면 유효한, 효력이 있다는 의미가 된다. Kontrak ini mulai berlaku tahun depan.(본 계약은 내년부터 유효하다.) Kartu kredit ini tidak berlaku lagi.(이 신용카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Semua Permintaan karyawan tidak dapat(bisa) diberlakukan di perusahaan dalam situasi sekarang ini. (현재 회사 사정상 종업원의 모든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

구멍, 구멍을 내다

구멍은 Lubang, Bolong이다. Tolong dibolongkan(dibolongin) kertas ini untuk file. (서류 파일을 위해 구멍을 내 주세요.) 구멍을 내는 기계는 bolong에 접미사 -an이 붙은 bolongan이다. 충치로 치아에 구멍이 나면 gigi bolong, 바늘귀는 lubang jarum. Jarum은 바늘. Benang은 실이다.





#8시 정각과 8시 15분, 30분, 45분 표현하기?

8시가 되기 15분 전인 7시 45분은 Jam 8 kurang seperempat (꾸랑 스페르움팻) *kurang 부족
8시 정각은 Jam 8 pas (빠스).

8시 15분은 Jam 8 lewat seperempat (레왓 스페르움팻). *lewat 지나다

8시 반은 Jam setengah 9. = 9시가 되기 절반(30분). 즉, 8시 반을 의미. Jam 8, 30 menit도
가능.

Setengah jam = 30분(한 시간의 절반)

**분수 표시에서 $1/4 = se\ perempat$, $2/4 = dua\ perempat$, $3/4 = tiga\ perempat$ 이라 표현하
지만, 시간을 나타낼때는 seperempat(15분)만 쓴다. 여기서 seperempat은 영어의 quarter(4
분의 1)이라 생각하면 되고, Setengah는 Half(2분의 1)이다.

'malam ini'와 'nanti malam'의 차이는?

둘 다 '오늘 밤' 을 의미한다. Ini는 이것 또는 지금(sekarang)을 의미하는데 지금 현재 밤이
라면 malam ini를, 아직 밤이 안 되었는데 '이따 밤에~' 라고 표현하고 싶다면 nanti malam을
쓴다. 반대로, 아침에서 pagi ini와 tadi pagi가 있다면 현재 지금 아침이라면 pagi ini를, 이미 오
후가 되었는데 오늘 아침의 일을 회상한다면 pagi tadi를 쓰면 된다. 그럼 퀴즈! 아침 조회 시간
에 "오늘 밤에 여러분은~" 이라고 말한다면 malam ini를 쓸까 nanti malam을 쓸까? 더 자연
스러운 표현은 nanti malam이다.

'~척하다' 표현하기

모르는 척 하다?는 pura-pura tidak tahu. 피병을 부리다(아픈 척하다)는 pura-pura sakit.
예) Nila pura-pura sakit, karena tidak mau ke sekolah. 날라가 학교에 가기 싫어 피병을 부린다.

인도네시아 민법(12)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전호에서 계속)

11.7. 위임 계약

위임자가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법률행위를 피위임자에게 위임하고, 피위임자는 위임자의 명의로 위임받은 법률행위를 행하고, 피위임자가 위임장 내용대로 행한 법률행위를 위임자가 책임지는 계약관계를 위임이라고 한다. 다시 설명하면 위임이란 당사자의 한 편(위임자)이 다른 편(피위임자)에게 위임자를 대신하여 어떤 행위를 처리해 줄 것을 위탁하고, 피위임자가 그것을 수락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다.

어떤 일을 처리한다는 뜻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일, 즉, 그 일을 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에 권리와 의무관계가 발생하는 일의 처리를 뜻한다. 회사의 방대한 일을 사주 스스로 전부 처리하지 못하고 경영진을 선임하여 회사를 경영하게 하고, 경영진은 또 직원을 채용하여 회사의 일을 보게 하는 경우나, 권리 침해에 당한 사람이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스스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변호사를 자기의 법정 대리인으로 임명하여 권리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주와 경영진의 관계, 경영진과 직원의 관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과 변호사의 관계를, 법에서는 위임의 관계로 보며, 위임의 관계는 위임자와 피위임자 간에 계약 관계를 발생시켜 위임장을 주고 받음으로 인해 위임자와 피위임자에게 각각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사정이 있어서 아는 사람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되어서 친구에게 대리 참석을 부탁하고 친구가 참석하는 경우에는 위임 관계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친구를 대리하여 결혼식에 참석한 것은 법률관계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11.7.1. 위임의 종류

위임을 발생시키는 방법에 따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의 종류는 공정증서 위임, 일반문서 위임, 구두 위임, 묵언 위임, 무료 위임, 특별 위임 및 일반 위임이 있다.

11.7.1.1. 공정증서 위임이란 위임자가 공증인 앞에서 피위임자에게 특정사항을 위임하고 위임사항을 공증인이 공정증서로 작성한 위임관계를 뜻한다. 위임하는 내용이 적법해야 하며 법정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법정에서 최고의 증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공정 위임장을 부인하는 자는 부인하는 자가 공정 위임장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할 의무가 있다. 중요한 사항은 공정 위임장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정 위임장에는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싸인은 있지 않고 서명 날자, 증인의 성명 및 공증인의 싸인만 있다.

11.7.1.2. 일반문서 위임이란 공증인을 개입시키지 않고 위임자가 피위임자에게 서면으로 직접 위임을 한 위임을 뜻한다.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오라고 위임 내용을 타자하고 정부수입인지를 부치고 서명하는 경우에 이러한 위임은 일반문서 위임에 해당된다. 현실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위임 방법이며 또한 위임자와 피위임자 간에 분쟁 발생이 가장 많은 위임 방법이기도 하다.

11.7.1.3. 구두 위임이란 문자 그대로 서면이 아닌 말로 하는 위임이다. 손가락으로 피위임자를 가르치며 이 사람이 내 피위임자라고 가르치는 위임이다. 민법에서 구두 위임도 적법한 위임으로 규정하고 보호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가능하면 구두 위임은 피하고 서면 위임이 바람직하다.

11.7.1.4. 묵언 위임은 위임자가 피위임자에게 구체적으로 위임을 하지 않았으나 처리된 일의 결과로 봐서 위임자가 피위임자에게 위임하여 처리된 결과로 간주되는 위임을 뜻한다.

11.7.1.5. 무료 위임이란 피위임자가 위임받은 일을 반대급부 없이 무료로 처리한다는 위임을 뜻한다. 모든 위임관계는 법적으로는 처리하는 일에 대한 보수를 위임자가 피위임자에게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나 무료 위임에서는 위임자는 피위임자에게 보수 지불 의무가 없으며 마찬가지로 피위임자도 위임자에 대하여 보수 청구 권리가 없다.

11.7.1.6. 특별 위임이란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뜻한다. 한 가지 혹은 몇 가지의 특정한 사항을 포함시켜도 무방하다. 의뢰인이 변호인에게 주는 위임, 부동산 매매 위임은 특별 위임이어야 한다.

11.7.1.7. 일반 위임이란 위임자의 모든 사항을 피위임자에게 위한다는 내용의 위임이다. 일반 위임은 관리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소유에 관한 사항을 일반 위임으로 하는 경우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예”를 들면 위임자의 모든 재산 매각을 피위임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에 피위임자는 이 위임장으로는 재산 매각이 불가하다. 왜냐하면 법에서 재산 매각 위임은 반드시 위임장에 매각 위임 재산을 구체적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경우에 부동산의 지번, 등기권리증서 번호, 등기권리증서 보유자 성명 등 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자동차 매각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내 자동차 매각을 위임한다는 내용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차종, 모델, 자동차 번호 및 차량소유 증명서 번호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일반적인 사항은 당사자 간에 직접 서명하는 위임장도 무방하나 중요한 사항, 특히 매매에 대한 사항이나, 경영권 위임, 주주총회 참석, 저당권 설정, 양도 담보권 설정, 보증에 관한 위임 등은 위임장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이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다.

11.7.2.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위임 사항

일반 사회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항은 위임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법적으로 위임을 불허하는 사항들이 있다. “예”를 들면 유언이나 유서이다. 유서 혹은 유언을 이러 이리한 내용으로 위임한다는 위임장은 위임자와 피위임자 간에 합의하고 서명이 되어 있어도 법에서 불허하는 사항이므로 원인 무효이다.

11.7.3. 재위임

위임장에 재위임을 금한다는 내용이 없는 한 피위임자는 위임받은 사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제삼자에게 재 위임할 수 있다. 위임장에 재피위임자의 이름이 들어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만 재위임을 해야 하며 없는 경우에는 피위임자가 임의로 재피위임자를 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직원에게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오라고 현금 인출 위임장을 준 경우에 위임장에 재위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직원이 현금 인출 위임장을 제삼자에게 재위임해도 불법이 아니다.

11.7.4. 위임자의 의무

11.7.4.1. 위임자는 피위임자가 위임장의 내용에 따라 이행한 위임 내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피위임자가 위임 내용을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모든 권리와 책임이 위임자에게 있다. 피위임자가 위임장으로 위임자를 대리하여 제삼자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제삼자가 계약 내용을 어기면, 위임자는 피위임자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곧바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거꾸로 피위임자가 계약 내용을 어기게 되면 제삼자의 손해 배상 청구 대상이 피위임자가 아니고 위임자가 된다.

11.7.4.2. 피위임자에게 보수를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위임장을 주면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관계가 되므로 위임자는 피위임자에게 반대급부 지급 의무가 있다.

그러나 양자 간에 반대급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양자 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 반대급부의 크기는 총 소득 금액의 3%, 총 지출 금액의 2%, 밀천의 1.5%이나 양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 내용이 유효하다. 피위임자에 대한 반대급부는 위임내용의 승패에 관계없이 위임자가 피위임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위임자가 피위임자에게 반대급부 지급을 거부하면 피위임자는 피위임자의 관할 아래 있는 위임자의 재산에 대하여 위임자의 인계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11.7.5. 피위임자의 의무

11.7.5.1. 피위임자는 위임받은 사항을 위임장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in good faith) 수행해야 하는 법정 의무가 있다. 피위임자가 위임받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위임자는 피위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고객(위임자)이 증권회사(피위임자)에게 특정 회사의 증권을 특정한 시기에 매입 혹은 매각을 위임했는데 피위임자인 증권회사가 위임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위임자인 고객은 증권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1.7.5.2. 위임자에게 위임장의 내용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대부분의 피위임자들이 잘 지키지 않은 상황이나, 법에서는 피위임자는 위임장의 내용 이행 결과를 위임자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소를 당할 수도 있다. 법에 정해진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범하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금전차용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가 준 담보 부동산 매각 특별 위임장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권을 변제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부동산 매각 특별 위임장의 내용 이행, 즉, 채무자의 부동산 매각 결과를 위임장을 준 채무자에게 보고치 않으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임장 내용 이행 결과를 보고치 않은 이유를 들어 거꾸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위임장을 준 채무자에게 결과 보고를 하지 않은 행위는 민법상의 범법 행위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 배상 의무를 지게 된다. 위임장은 피위임자에게 대리권을 주면서 동시에 의무를 부과시킨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Nasi Goreng Kebun Sirih



인도네시아 rending 렌당 또는 른당이라는 음식이고 두 번째가 Nasi goreng 나시고랭이라고 CNN go에서 실시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50가지’ 중에 선정이 되었다. 이러한 투표 결과(?)를 보고 인구강국이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사용하기 위해 온라인을 사용하는 SNS 세계 탑 5순위에 드는 인도네시아인들의 열렬한 자국애로 인하여 몰아주기 식의 투표로 당연한 결과가 나타났음을 보여줬다.

나시고랭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인도네시아식 볶음밥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부재료가 많이 들어간 나시고랭보다는 나시고랭 본연의 맛을 잘 느낄 수 있게끔 2가지의 주재료와 더불어 불맛이 나시고랭의 맛을 좌우한다고 보는 나름의 철학이 있다.

서론이 길었다. 이번 소개할 음식은 Kambing 염소고기가 주재료인 나시고랭이다.

자카르타 Pusat Kebun Sirih 지역에 있는 길거리 나시고랭 집이다. 앞서 말했듯이 염소고기 부위가 주재료인 나시고랭으로 닭고기가 사용되는 일반적인 나시고랭도 판매하지만 이 집은 카레가루를 포함하여 몇가지의 향신료를 사용하여 염소 특유의 잡내가 없고 대형 wok에서 요리를 하기 때문에 보는즐거움도 같이 느낄 수 있다.

전형적인 인도네시아 길거리 음식의 대표 주자로서 현지인들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붐비는 저녁시간에는 혁-소리가 날 정도

의 고급차량이 그 집 ‘텐다(Tent) 주위로 즐비해 있는 모습도 이색적이다. 그 말은 즉 다양한 사람들이 이 곳에 나시고랭 즐겨찾는 다는 이유이다.

우리말로 채소절임 또는 장아찌 정도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오이, 당근, 짜베(Cabe)를 절인 신선한 아짜르 또는 ‘Acar’ 는 나시고랭을 먹다보면 느낄 수 있는 느끼함을 줄여준다. (개인적으로 현지음식을 먹을 때 필자는 아짜르를 퍼먹는 수준(?)이다)

일반적인 나시고랭집보다는 가격이 있는 편으로 1인분(1 porsi) 5만루피아 미만이며,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 오후부터는 붐빌 수 있다.

주차장은 따로 없으며 일반적으로 길거리에 주차를 한다.

워낙 현지인들에서 유명한 곳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맛은 명성에 비해 호불호가 나뉠 수 있으니 참고 바란다.

주소: Jalan Kebon Sirih Barat Dalam I, Gambir, Kota Jakarta Pusat,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0110

오픈시간: 오후 4시부터~새벽 3시까지

일상에서 부딪히는 법률 상의 궁금증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자

지적(지식) 재산권 [Hak atas Kekayaan Intelektual-HAKI] 소개 및 관련 법률

Q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20년을 살아 오면서 거의 매일 Luwak Coffee를 마셔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한국에서 놀러온 친구들이 그 커피를 너무 좋아하며 상표를 만들어서 한국으로 수출해 보라고 권유해서 제가 자주 마시는 Luwak 커피의 원산지인 Palembang의 이름을 따서 “Palembang Luwak Coffee” 라고 명명하여 법무인권부 지적재산국에 상표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반려 되었습니다. 왜 상표 등록이 거절 되었나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기존 인도네시아 “상표법” 인 법률 2001년 제 15호가 폐기되고 새로운 법률인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 이 2016년 제 20호 (UU No.20 Tahun 2016)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에서는 특히 지리적 표시에 관하여 구 법률에서 간략하게 규정하던 내용을 신법에서는 제 53조부터 제 71조까지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Palembang Luwak Coffee는 우리의 사향고양이와 유사한 고양이를 지칭하는 보통 명사인 Luwak과 Palembang이라는 뚜렷한 지리적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당연히 상표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한국에 본사를 둔 화장품 생산 업체로서 이번에 개발한 대나무 성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기능성 화장품 생산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소비 시장으로서 새롭게 각광받는 인도네시아로 진출하고자 합니다.

A

Q

그런데 특허관련 종사자들의 조언이 특허 신청부터 허가서 발급까지 무려 5년 정도 소요되고 특허 발급 시부터 허가 비용을 매년 정부에 지불해야 하며 특허권을 신청 시부터 소급해서 10년 밖에 부여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5년 밖에 효과가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예. 귀하의 설명이 전부 맞습니다.

그래서 귀사는 부여받은 5년의 특허 실익 기간에 최대의 판매 및 이익 창출이 가능한지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허 기간이 지나면 원천 기술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술을 시장에 공개하여 역으로 손해를 입지 않을지와 아니면 특허 신청을 포기하고 상업 비밀을 유지하여 영구히 그 기술을 보유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편이 더 유리한지 비교 후 선택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A

인도네시아 지적(지식) 재산권의 종류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 (1) 산업재산권 (Hak Milik Industri) - 모두 국가(특허청)에 등록해야 권리인정
 - 1) 특허권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 할수 있는 권리) - 특허법 (UU Paten - UU No.13/2016)
 - 2) 상표권 (자사상품 식별표시의 선택) - 상표법 (UU Merk - UU No.20/2016)
 - 3) 영업비밀 (Rahasia Dagang) - 상업 비밀법 (UU Rahasia Dagang - UU No.30 / 2000)
 - 4) 산업 디자인권 (Desain Industri) - 산업 디자인법 (UU Desain Industri - UU No.31/2000))
 - 5) 3차원 컴퓨터 집적회로 디자인권 (DTLST) - UU DESAIN TATA LETAK SIRKUIT TERPADU - UU No.32/2000
- (2) 저작권 (Hak Cipta) - 창작한 것만으로 권리인정
학문적, 예술적 창작 - 저작권법 (UU Hak Cipta - UU No.8 / 2014)
- (3) 저작권 관련 권리 (Hak Terkait) - 가수 및 밴드, 음반사, 공연기획자등의 권리

작성 : 김 종성 (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활동 소개 및 경제 강좌 개최

제 1부 헤리티지 코리안 섹션 활동 소개 및 계획

회장: 이수진

제 2부 인니 한인만 가능한 재테크

부제: 환율 금리 주가 전망

강사 : 류은우, 심태용(미래에셋 대우)

대상: 헤리티지 코리안섹션 회원

장소 : 헤리티지 도서관(몰 플라자 스나얀 내 센트랄 스나얀 1 / 17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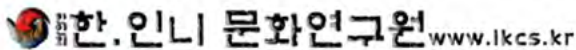
일시: 2017년 1월 23일(월) 10시~ 12시

회원 가입 : 헤리티지 도서관에서 가능 연회비 45만/ 가족(1월부터 특별가)

모든 회원 2017년 8월까지 유효

신청: leetaria@gmail.com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코리안섹션



42회 열린강좌

제 2강 Chinese Indonesian (제3강 2월 예정)

*일시: 2017년 1월 21일 (토) 10:00-12:00

*강사: 노경래(전 포스코 인도네시아 자원개발법인 법인장)

*신청:(SMS/KT) 안미경 수석팀장 081514216766 / 08161909976

*회비: 10만Rp (책자, 간식) (비회원 15만Rp)

*장소: 한*인니문화연구원(한인회문화회관 1층)

Jl. Gatot Subroto Kav.58 (Korean Embassy, Rumah Sakit Medistra 사이)

아시아 250만여 명이 참여하는 해비타트 유스 프로그램에 함께하세요!



Young Leaders Build

영리더스빌드 프로그램 인도네시아 지역 참가 안내

Youth-유스(10-30대)라면 누구든지 여러분 모두 해비타트 영리더스빌드(HYLB)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직접 리더가 되어 친구, 가족과 함께 참여하고 메시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집이 없어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이 더 나은 삶, 보다 행복한 내일을 살 수 있도록 주변 의식을 높이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가족, 학교, 직장,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와 함께 파트너가 되어 후원하고, 함께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열악한 가정을 위한 더 튼튼하고, 안전하며, 독립된 주거지의 필요성을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play



@HabitatYLB
#HabitatYLB

lead

 bit.ly/HabitatYLB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함께 참여하고 변화의 리더가 되세요!

- 친구들과 함께 HabitatYLB 액티비티나 이벤트를 기획하기
- 안전하고 안락한 주거의 중요성을 옹호하고 알리기
- 인도네시아해비타트 자원봉사자가 되어 희망의 집 짓기
- 집을 짓고 마을 공동체를 개선하는 데 후원하고 모금하기
- 해비타트 해외봉사프로그램-Gloval Village에 참여하기

Habitat Young Leaders Build(HYLB)

는 아시아 지역에서 펼치는 유스 자원봉사 캠페인입니다. 현재까지 4백만명의 봉사자가 참가하여 23,745 가정이 새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매년 12월 5일, 국제 자원봉사의 날에 런칭하여 금년으로 제6회를 맞이하고 16개 국가에서 250만여명의 봉사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함께 하세요.

[참가문의]

- 한국어: Esther Yoon / EYoon@habitat.org
- 인니어: Herry H. / herry@habitatindonesia.org

share





● 생각하는 정원

〈 생각하는 정원 〉은 농부 성범영이 1968년부터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의 황무지를 개척하기 시작한 후 수많은 생각과 집념의 결실로 맺은 가장 세계적인, 가장 제주적인 정원이다

1만 2천평 대지에 7개 소정원들과 다양한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소정원들은 서로 다른 폭포와 연못 그리고 돌다리가 이어져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오름과 잔디광장을 중심으로 한국 고유의 수종인 정원수와 분재 그리고 특이한 형상의 괴석과 수석들이 생명의 아름다움과 유구한 세월을 느끼게 하며 사색에 빠져들게 한다.

제주의 거센 바람으로부터 나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교하고 높게 쌓은 돌담은 성(城)이 되었고, 전시와 편의를 위한 조형과 건축물은 제주의 자연과 미를 온전히 담아놓았다. 또한, 이 정원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정원에서의 깨달음과 생각을 나무아래의 설명글에 적어놓아 관람시 나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어 정원관람에 즐거움을 더하고 있다.

창조와 예술, 심오한 사상과 철학이 융합된 한 사람의 꿈과 열정은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정원'이 되어 전 세계인들의 발길을 유혹하며, 국제적 탐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17학년도 초등과정 신입생 모집 안내

2017학년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초등과정 1학년 신입생 모집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입학자격

2010년 3월 1일 ~ 2011년 2월 28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단, 조기입학의 경우 면접을 통해 학업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의 경우 입학허가 할 수 있음)

2. 원서접수

- ▶ 접수기간 : 2016년 12월 1일(화) ~ 2016년 1월 20일(금)까지 (08:00~14:00)
- ▶ 접수장소 : 본교 행정실 / 담당자 강주미 (☎844-4958, 교환 155번)
- ▶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 - 행정실 및 한국계 슈퍼마켓 비치(jiks.com- 다운로드 가능)
- ② 입학생 · 학부모의 여권 및 KITAS 사본 각 1부
- ③ 보호자 재직증명서 1부
- ▶ 입학금, 수업료 납부 : 원서 접수 시 공지 예정
- ▶ 스쿨버스 이용 희망자는 원서 접수 시 별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3. 신입생 면접

- ▶ 일시 : 2017년 1월 24일(화) 13:30~14:30
- ▶ 장소 : 1학년 교실

4. 입학식

- ▶ 일시 : 2017년 3월 3일(금) 10:30 (2017학년도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 장소 : 본교 내려홀

※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http://jiks.com>) 참조 바랍니다.
(입학원서, 스쿨버스 신청서는 본교 홈페이지 [입학마당] → [입학서류]에서 출력가능)

2016. 11. 18.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장

지역한인회 주소록

2017년 1월 현재

번호	지역	직위	성명	휴대폰
1	발리	회장	윤 경 희	0811-385-841
		부회장	편 성 호	0812-389-0694
		수석총무	최 경 희	
		총무	송 학 자	0812-362-3000
		총무	손 민 석	0858-5732-0669
2	반둥	회장	엄 정 호	0812-201-8309
		수석부회장	편 대 영	0813-2145-7997
		사무국장	오 명 근	0812-115-1004
		사무차장	남 상 일	0812-2400-0303
3	케프리주 바탐	회장	공 자 영	0811-691-826
		수석부회장	주 정 만	0812-704-5030
		사무국장	정 규 철	0812-701-6090
		총무	이 상 구	0821-7356-8405
4	보고르	회장	이 철 훈	0811-112-179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5	메단	회장	홍 상 철	0811-160-8724
		총무	손 근 환	0812-655-9418
6	수까부미	회장	김 흥 기	0811-980-337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7	동부자바 수라바야	회장	배 춘 식	0811-332-4001
		수석부회장	이 경 윤	0817-321-833
		사무총장	김 태 현	0818-321-332
		수석총무	정 상 원	0812-3373-8798
		총무	박 한 진	0813-5274-8703
8	중부자바 (스마랑)	회장	김 소 응	0811-278-8909
		사무국장	채 환	0822-2021-5725
		사무총무	이 승 현	0811-978-0282
9	족자카르타	회장	박 병 엽	0821-3352-6380
		총무	조 용 재	0815-4880-0256
10	즈파라	회장	문 창 윤	0858-865-700003
		수석총무	조 영 성	0813-9032-3355
		총무	양 세 환	0822-2719-9135
11	땅그랑 반뜰	회장	오 세 명	0816-187-8582
		사무국장	허 미 숙	0818-660-732
12	마카사르 솔라웨시	회장	이 재 호	0811-444-190
		총무	한 정 곤	0811-419-200

2016년 안인회 임원 찬조금 납부 명단

※ 최종입금 확인일: 2016년 12월 30일

번호	구분/직위	성명	금액(IDR)
1	자문위원	이진호	13,200,000
2	이사	이지완	13,200,000
3	이사	곽봉규	13,200,000
4	이사	서준형	13,200,000
5	이사	김종성	13,200,000
6	이사	황윤홍	13,200,000

한인회 정관 부칙 제2조 다항에 의거, 한인회 임원으로서 당 해년과 직전년도 2년 이상 찬조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임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합니다.

2016년 개인회비 및 불우이웃돕기성금 납부 명단

※ 기준: 가나다 순

번호	성명	금액(IDR)
1	승은호	300,000
2	이옥찬	300,000
3	최상직	300,000
4	No Name	600,000

<2016 한인회 송년의 밤>

찬조금 후원 명단

(최종입금확인일: 2016년 12월 30일)

번호	구분/직위	성명	금액(IDR)
1	회장	양영연	200,000,000
2	부회장	김준규	100,000,000
3	부회장	김희년	100,000,000
4	이사	김태화	100,000,000
5	용마	마용도	100,000,000
6	수석부회장	김주철	50,000,000
7	수석부회장	박미례	50,000,000
8	수석부회장	박재한	50,000,000
9	부회장	강호성	50,000,000
10	부회장	김우진	50,000,000
11	부회장	신규태	50,000,000
12	부회장	이호덕	50,000,000

13	부회장	홍춘식	50,000,000
14	이사	서영률	50,000,000
15	이사	길병완	30,000,000
16	명예고문	신기엽	20,000,000
17	이사	김영울	20,000,000
18	부회장	손한평	10,000,000
19	부회장	안윤근	10,000,000
20	이사	김민규	10,000,000
21	이사	윤조현	10,000,000
22	우리은행	박태용	10,000,000
23	자문위원	이진수	5,000,000
24	이사	이옥찬	5,000,000
총 금액			Rp1,180,000,000

<2016 한인회 송년의 밤>

찬조품 후원 명단

	구분	성명	찬조품
1	명예회장	승은호	삼성 갤럭시 S7
2	명예고문	김우재	아시아나 이코노미 1인 왕복(자카르타-인천) 티켓
3	고문	송창근	대한항공 비즈니스 1인 왕복(자카르타-인천) 티켓
4	고문	조규철	삼성 갤럭시 S7
5	고문	배도운	삼성 갤럭시 S7엣지
6	수석부회장	강희중	삼성 갤럭시 S7엣지
7	자문위원	김영주	무궁화 상품권 (3백만 루피아)
8	자문위원	이진호	무궁화 상품권 (3백만 루피아)
9	이사	신만기	삼성 갤럭시 S7
10	이사	오세명	아시아나 이코노미 1인 왕복(자카르타-인천) 티켓
11	이사	양태화	삼성 갤럭시 S7 (2점)
12	이사	이강현	삼성 갤럭시 S7엣지
13	신한은행	서태원	삼성 갤럭시 S7

[안인외 외비 납부 안내]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입니다.

한인회비 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한인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실명 위기의 김모씨(53세, 끌라빠가당 거주)에게 눈수술을 위한 수술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한인회는 김모씨가 2016년 8월9일 출국하여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한인구조단(사단법인 월드쉐어)과 연계하여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이렇듯 한인회비는 어려움에 처한 한인동포들을 돕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양영연 배상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100-913-000-538	Rp. A/C NO: 220-200-5949	Rp. A/C NO: 001-001-100-2049
예금주	ASOSIASI KOREA	YAYASAN ASOSIASI KOREA	

외원증 발급

회원이 되신 분(기 납부하신 분 포함)께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여권 혹은 키타스 사본, 사진1매(크기에 상관 없음)



한국인 취업 안내
 JAC는 현지 한국인 취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희망자는 아래 메일로
 CV(영어/ 한글) 송부바랍니다.

유능한 현지 인재 채용 ... 정말 어려우시죠?

-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 채용 (중간관리자, 마케팅, 인사, 회계, 법률, IT 및 임원급)
- 회사/사무소 설립, 노동허가(KITAS) 외 각종 인허가, BKPM신청부터 원-스톱 토달서비스
- 외국기업· 사무소 회계 세무 대행, 단기간 직원파견, 회사설립 전 직원고용계약 대행(EWE)

Korean Desk
 Tel: 021- 315-9504, 9506 (영어/인니어)
 Mobile: 0878-8042-9794 (한국어)
 E-mail: koreandesk.id@jac-recruitment.com
 www.jac-recruitment.co.id

본점 : Menara Cakrawala 18 Fl. Jl. MH. Thamrin No. 9 Jakarta / 지점 : Bekasi, Karawang, Surabaya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중소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끌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IS)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HIS)	0812971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EMBASSYSCHOOL	390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유치원

KIDS Island	765	6588
Bambino (위자야)	720	3356
(빠뜨라 꾸닝안)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끌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골프장

BOGOR RAYA	0251	827 1888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	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	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가 가 **한식 양**
KANA 가나
RESTOLOUNGE



1. 복요리전문
2. 직수입한 삼합
3. 비즈니스컨셉 (삼계탕)
4. 돌잔치, 모임, 케이터링행사 대환영

Landmark Bld. Ground Floor
 Jl. Jend. Sudirman Kav. 1 Jakarta
 Phone : 2520077, 5710909
 HP : 0811 918 132

강남렌트카



0811-9409-632
 0812-1097-631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동문회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노태진)	0816 835 185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상고(정천수)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5 1906 0877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한인뉴스는 생활정보란의 전화번호를 업데이트하고
 자 합니다. 전화번호 게재를 원하시는 개인이나 단체
 및 업체는 1월, 2월 두 달간 한인뉴스로 연락을 주시
 기 바랍니다. (Tel. 021-521-2515)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
부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신균)	0811 157 450
서울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최무중)	0811 8532 0354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780 751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인기상)	739 7625
경북대(김규식)	0816 182 3748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백성영)	871 2371
고려대(이광수)	0813 8026 1353
공군사관후보생(김기정)	0817 918 7100
부경대(이제원)	0812 968 9797
동국대(염정윤)	0817 681 8599
동아대(서준근)	0811 850 212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 975 205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 1177 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승)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손동근)	0811 844 247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신성철)	0818 936 943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임영석)	0811 944 338
ROTC(인내지회사무국장한규성)	0818 890 571

●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18 3535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법인/인허가/비자/채용/부동산/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우리투어

Tel : 021-794-0422 / 021-7919-9201
HP : 0811-1742-081 / 0815-4609-7209
Katalok ID : uritour88
Email : master@uritour.org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www.doowang.net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기쁨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뵈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로데미와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Tel: (021) 4587 8833 Fax: (021) 293 64168
HP: 0812 967 8131
E: rodemtours@naver.com
rodem_tours@cbn.net.id



Law Firm
INDOYANG & PARTNERS
법무법인 인도양

강력한 변호사 팀 / 확실한 법적 해결

김 중성 (대표 Partner) : UI대 법대졸, 법대 대학원
 HP : 0815-8690-3000 Email : cskim@indoyanglaw.com 또는 cskim.indoyanglaw@gmail.com
 Korea Center Building, Suite 605 Jl. Jend.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12950, Indonesia Telp : 62-21-5273077 / 8 Fax : 62-21-5207212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중 법연원 720 8607
 조계중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가구

조지언 퍼니처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울맷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롬황성주생식 5296 1522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바틱하우스 0816 770 14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꿀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미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킨미용실,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퀸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준한의원 722 774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서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꿀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꿀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2016년 한인 문예총

<회장단&집행부>

사공경 회장	0816 1909 976
강희중 고문	0816 798 221
이일하 부회장/기획/ 음협 회장	0811 9103 108
신돈철 부회장/전시/ 미협회장	0878 5480 4815
박형동 부회장/공연/ 한바패회장	0811 149 586
이수진 부회장겸 사무국장/ 헤리티지회장	0816 1300 210
채영애 감사/아르떼 여성합창단 단장	0816 745 384
허민경 사무차장/ 스트링 오케스트라 단장	0812 1316 2064
<협력단체장>	
서예협회장 : 양승식	0811 111 363
루시플라워 회장 : 최정순	0811 834 026
미술협회 회장 : 신돈철	0878 5480 4815

문인협회 회장 : 서미숙	0812 8178 050
한바패 회장 : 박형동	0811 149 586
어린이합창단 지휘자 : 안영수	0811 9005 639
색소폰동호회 회장 : 박의태	0811 876 547
헤리티지(코리안) 회장 : 이수진	0816 1300 210
국악사랑 회장 : 장방식	0811 902 003
월화차 회장 : 이춘순	0878 8333 3359
음악협회 회장 : 이일하	0811 9103 108
아버지양상블단장 : 변영극	0815 9101 898
아르떼 여성합창단장 : 채영애	0816 745 384
스트링 오케스트라 단장 : 허민경	0812 1316 2064
<촉탁전문위원>	
* 안선근 : 현지단체교류	0816 883 223
* 최석일 : 문화컨텐츠	0818 901 609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2277 5526
위자야마트	726 9049

•식당

하나	0254-393 2146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야성	725 7373
가호(SCBD 점)	5289 7044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고주몽	7279 6709
	8984 1000
김균 고기고기	726 4999
김삿갓	722 223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0 7530
대화	720 6091
락	5793 9211
마포	7279 2479
맛집칼국수	0821 1096 3483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까시 서울	8895 7604
베다니1호점	9318 0458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0254-848 4111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설악추어탕	722 1852
소래포구	8990 5051

씨티서울	5289 7506
아랑22	5140 1245
아리정	739 6549
우장군	725 6181
유미	720 7464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토박	725 1135
하누	725 5042
한강가든	0813 1988 5751
한솔	5290 3417
한양가든	2751 7370
이가네	6669 5500
한옥	0254-385 588
강산	2452 0569
깜닭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산정(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송가네삼계탕	4585 4422
야래향	4584 8476
황금밥상	4585 3402
감미옥	5579 4612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꼬꼬파리아	0254-39 4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체어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520 7207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2930 6886
중앙일보	7590 8308



ICHTHUS SCHOOL
A Christian School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PRIMARY | SECONDARY | A LEVEL



Contact :
 South Campus: Jakarta Selatan
 T: +6221 7590 8820
 West Campus: Jakarta Barat
 T: +6221 581 2228





www.ichthusschool.com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한국일보	769	1081
한인포스트	4586	9199
일요신문	452	5655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723	5360
스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라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	-----	----------

CITRA	781	7771
-------	-----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7590	676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INNOMATE	7919	2006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랜스	520	4181
트랜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 2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6242
키움증권	526	1326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건설팅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건설팅	7280	0524
누비라건설팅(리뽀찌까랑)	8990	0088
두왕건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인재채용

JAC Recruitment	315	9504
-----------------	-----	------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하숙

경북궁하숙(리뽀찌까랑)	0813	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간다리아게스트하우스	0858	1442 2900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 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 9978
교민 하숙	0816	163 555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동지 하숙	3608	9316
리뽀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모이하숙	0878	8515 1653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명 하숙	0852	1757 55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소망 하숙	0813	1724 9911
쉼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인다 게스트하우스	0822	6074 8228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엘림 게스트하우스	0815	181 3122
위자야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자카르타 게스트하우스	0817	127 887
풀하우스 게스트하우스	0811	888 9609
한밭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한마음 게스트하우스	0813 8822 7783
BSD등불 하숙	0852 1985 1523
힐링 게스트하우스	0821 1427 5415

●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9103108
박학천논술	4586 7844
뽀독인다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아트스쿨(리쁘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케이에듀인 한국어/유학원	2942 7062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0813 989 22222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72 1381~3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솔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 51158
환전	712 8556

창립 24주년 행사

아시아진주가 고객님의 사랑과 성원으로 창립 24주년이 되었습니다.
 고객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고자 최상의 품질과 정직한 가격으로
 고객에게 다가가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감사 특별 할인행사 : 2016년 12월 15일 ~ 2017년 2월 28일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감사 특별 할인 및 한정 판매

남양진주(10-17mm) 50점

다이아(3부-1캐럿) 10점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매각 가능
-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수출·무역

HP. 0816-873-176, 0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82-10-5256-6862, +82-10-9824-8857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최 병우	0811-956-227	회장
강 희중	0816-798-221	검도협회장
곽 봉규	0815-410-4167	탁구협회장
김 송정	0816-716-293	볼링협회장
김 태화	0811-188-2938	스쿼시협회장
방 진학	0811-198-282	태권도협회장
배 응식	0811-965-2775	용무도협회장
이 광희	0811-998-186	축구협회장
정 성원	0817-785-348	테니스협회장
한 현봉	0811-111-5800	골프협회장
이 기홍	0819-812-507	사무총장
성기채	0815-1070-2424	사무차장

발 리 (지역번호 0361)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TOUR		261 105
MATAHARI KOREA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넷셔널라운지		759 368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카리스(특피전문백)	0811 998 1637

반둥 (지역번호 022)

반둥 아름다운교회	201 3184
	0813 2233 0119
반둥 반석교회	201 5022
한국인교회	201 4052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퓨터	0821-2222-6000



긴급전화번호

경찰	POLICE (Polisi)	112
범죄 및 도난 신고		110
소방서 (화재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대기)

■전화번호 안내

시내.....	108
Directory Service(City)	
시 외.....	105,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제전화.....	001,008

■교통기관

수카르노 하타공항안내.....	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	550 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	021)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 정보.....	801
Toll Road	
교통사고.....	118, 021)527 5090
Traffic Accidents	
열차시간안내.....	121
Station Gambir	
Station Kota.....	021)692 8515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021)2967 2555
영사과.....	021)2967 2580
재인도네시아한인회.....	021)521 2515
한인회 24시간 비상연락....	0812 1960 308

■항공사 안내

대한항공(시내).....	021)521 2180
(공항).....	021)550 2389
가루다(Call Center).....	021)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 항공(시내).....	021)5721 381~3
(공항).....	021)5591 3229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	021)384 4188
-----------------	--------------

■각종 고장 문의

전기고장 문의.....	123
전화고장 문의.....	147
수도고장 문의.....	021)57986555

비전은 계속된다!

한인기업의 비전은 코파가 만들어 갑니다



반도에서 적도로!

적도에서 세계로!

대한민국 신발산업의 미래!
적도를 통해
세계로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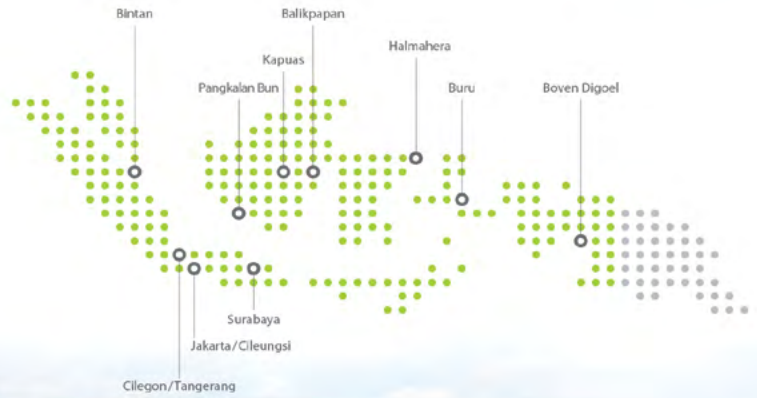
일제 강점기 고난속에서 싹 틔운
신발인들의 혼이
반도를 넘어 대륙을 거쳐 적도에서
그 꽃을 피운다.

적도에서 활짝 핀 한국 신발산업은
이제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날아 오른다.

지구촌 구석구석 우리의 손길을,
한국의 혼을 심는다.

KOFA는
약 200여 회원사가 활동중이고
인도네시아는 물론
전세계 단일 직능단체중
가장 왕성하고 활발한
생동감 있는 단체로 알려져있다.

KORINDO Plants the Green



인류의 지속가능성, 녹색경영에서 해법을 찾다!

코린도의 주력사업인 천연림경영, 조림, 팜오일, 목가공사업 등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친환경사업을 통해 지구와 인류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 Forestry Management
- Timber Plantation
- Oil Palm Plantation
- Rubber Plantation
- Plywood
- Plant
- Special Vehicle
- Battery Separator
- Coal & Limestone Mining
- Finance
- Total Logistics
- Shipping Division
- Engineering & Construction
- International Business Div.
- Real Estate Management
- Rest area & Gas station
- SG Consulting
- Wind Tower
- Newsprint & Printing / Writing Paper
- Wood Chip/ Veneer/ Sawn Timber/ Wood Pellet

No.1 RETAILER IN ASIA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는 글로벌 유통기업, **롯데마트**
인도네시아에서도 롯데마트는 대한민국 유통의 자부심이 되겠습니다.



HYPERMARKET (14 STORES)

JAKARTA: • Gandaria City (021) 29053060 • Ratu Plaza (021) 7394555 • Kelapa Gading (021) 45855111 • Mal Kuningan City (021) 304808888 • Fatmawati (021) 7591 0837 • LOTTE Mall Taman Surya (021) 29501300 | TANGERANG: LOTTE Mall Bintaro (021) 29310777 | CIMONE: Cimone City Mall (021) 29170235 | BEKASI: Mal Bekasi Junction (021) 88348885/88344681 | BANDUNG: Mal FestivalCityLink (022) 6128 500 | MAKASSAR: Mal Panakkukang (0411) 423445 | MEDAN: Mal Centre Point (061) 80501303 | SOLO: Mal The Park (0271) 7891250 | SURABAYA: Marvel City (031) 99440510

WHOLESALE (27 STORES)

JAKARTA: • Pasar Rebo (021) 8404090 • Kelapa Gading (021) 4523811 • Meruya (021) 5857101 | BEKASI: Bekasi (021) 82428818 • Cibitung (021) 8980678 • Cikarang (021) 89101018 | TANGERANG: • Alam Sutera (021) 5399660-61 • Ciputat (021) 74700140 • Jatake (021) 29329950 | SERANG (0254) 8241945 | BOGOR (0251) 7564700 | BANDUNG (022) 7503570 | CIREBON (0231) 8333024 | TASIKMALAYA (0265) 7293333 | SEMARANG (024) 6733535 | SOLO (0271) 740319 | YOGYAKARTA (0274) 4462616 | SURABAYA: • Masprip (0821) 32537174 • Sidoarjo (031) 8532244 | BALI (0361) 723222 | MEDAN (061) 8470010 | PEKANBARU (0761) 572215 | PALEMBANG (0711) 379623 | BANJARMASIN (0511) 3265450 | BALIKPAPAN (0542) 8879523 | MAKASSAR (0411) 832813 | BATAM (0778) 4803800

SUPERMARKET (2 STORES)

JAKARTA: La Codefina Kemang (021) 7182889 | BANDUNG: Bandung Electronic Center (022) 20510044